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박강호 총영사 개별 인터뷰

보스톤-인천 직항노선 유치, 못내 아쉽다

가장 공들였던 업무는 운전면허 상호교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돌아보니 의외의 연속이었다. 부임 첫날인 토요일, 현장을 찾아 방문했다. 첫 기자 간담회도 달랐다. 박강호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임기동안 보스톤 한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천년동안 백마일>이란 책의 내용중 '별난 생각을 가진 것을 허용하면 삶이 특별해질 수 있다' 말을 인용한 것이었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다.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 정치인들의 공약이 대부분 '빈 약속' 인 것과 달리 박강호 총영사는 공개적인 약속을 상당부분 지켜냈다. 그동안 유학생들을 비롯 보스톤 방문자들의 숙원이었던 한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교환을 성사시켰다. 월요일 영사관 근무시간 연장으로 한인들의 영사관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영사업무의 중심을 공관이 아닌 이용자인 한인에 두는 전환점이었다.

또한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물론 한국기 >>6면으로 계속



박강호 총영사가 이임한다. 지금까지 총영사 중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총영사로 평가된다

슈퍼스타 K6 보스톤 예선



지난해 이어 두번째 인재 등용 나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지난해 보스톤을 처음으로 찾은 슈퍼스타 K(이하 슈스케)가 올해 여섯번째 시즌 해외 예선을 위해 보스톤을 다시 찾는다.

'슈스케' 보스톤 예선전은 오는 4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버클리 음대에서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할 경우 한국행 항공권이 무료로 주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스타 등용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보스톤 지역 음악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지역 예선 통과자들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3차예선에 참가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슈스케' 공식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3차 예선 통과자들은 2박3일 간의 슈퍼워크에 참가해 경합을 벌이게 된다. 100여명의 슈퍼워크 통과자들은 생방송에 출연해 최후의 슈퍼스타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5억원에 이르는 상금과 아시아 최고의 음악 시상식 MAMA(Mnet Asia Music Award) 스페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와의 연계까지 슈스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슈스케' 6 보스톤 예선전은 지역 특성상 버클리 음대생 및 BU소리안 등 음악에 재능있는 유학생이 주 참가층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 청소년 및 한인들도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노래, 춤, 악기 등 어떠한 부문을 막론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다.

2009년 첫 시작을 알린 Mnet '슈퍼스타K'는 지난 다섯 시즌 동안 로이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Best Deal
1월, 2월, 3월, 4월 비수기출발
보스톤 ⇄ 인천 (왕복!) ONLY 1 stop

\$1073 부터

- ▶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 월~금 12pm -9pm
예약센터 |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heim@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IACE TRAVEL

MORTGAGE MASTER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oan/Broker W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 CONDO for SALE

- Quincy, MA/ \$480,000
- 방 3, 화 2.5, 2448 sf.
-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지난해 한국 인사동에서 3.1절 기념으로 열린 아리랑 플래시 몹 장면

하버드에 울려 퍼질 '아리랑' 3.1절 기념 오케스트라 플래시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지성의 거리 하버드 스퀘어 한복판에서 한국의 가락을 알리는 '아리랑' 플래시 몹이 개최된다. 독립을 선언한 3.1절을 기념해 이색적인 보스톤 이벤트로 열리는 이 플래시 몹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퍼포먼스는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땅', '애국가' 등이 연주와 함께 노래로 불려질 예정이다. 애국가는 원곡으로 연주되지만,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땅은 버클리 재학생인 김윤호 씨가 편곡해

준비했다. 악기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주로 참가하며, 처음 한명의 악기 연주자로부터 출발해, 연속적으로 다른 악기 연주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띤다. 플래시 몹에는 참가자들의 노래를 이끌어 나가는 보컬리스트들도 다수 참가할 예정이므로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즐파티'의 공동대표 심성훈, 김윤호 씨는 "지난 해 한국에서 제작된 아리랑 플래시 몹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이번 보스톤 행사를 하게 됐다"고 기획의

도를 밝혔다. "플래시 몹 주 연주자들은 버클리와 NEC 학생들이지만, 자원봉사 및 후원자로 흔쾌히 나서주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이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바이올린 연주자와 영상 촬영 및 편집 담당자가 다 채워지지 않아 고전중이지만, "미국 중심은 보스톤이고 보스톤 중심은 하버드 스퀘어라 생각한다. 이곳에서 한국의 정신이 담긴 플래시 몹을 제대로 해 보이고 싶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

로 올려,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스톤 하버드 스퀘어에서 울려 퍼질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땅, 그리고 애국가 플래시 몹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

들은 617-895-8116 (한글문자가능) 혹은 koreanparty0905@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아리랑 플래시몹 주최하는 김윤호 & 심성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오는 29일 10~15분간 하버드 스퀘어를 들썩이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리랑 플래시 몹' 주최자 김윤호(31세, 버클리음대 작곡 전공중), 심성훈(28세, 노스이스턴 대학 비즈니스 학과 졸업) 씨는 지난해 9월, 이벤트사인 '즐파티'를 창립, 첫 행사로 '추석 나이트'를 개최해 한인 유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후, 지난 6개월 간 할로윈 파티, 발렌타인 데이 파티 등을 주최해 오던 중, 진로 문제로 보스톤을 떠나기 전 의미 있는 행사로 이번 아리랑 플래시 몹을 기획했다. 이 둘은 보스톤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고단하고 분주했지만, 분명 그 기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앞으로의 인생에 자양분으로 스며들 것이라고. 오는 5월 버클리를 졸업하는 김윤호 씨는 팝, 광고, 애니메이션 음악 분야의 열정을 쏟아 내기 위



'아리랑 플래시 몹' 주최자 김윤호(좌), 심성훈(우)씨 해 엘에이 지역으로 떠난다. 음악과 한국에서 축구, 격투기 등 운동에 빠져 공부에 소홀했던 심성훈 씨는 군대를 다녀온 후 인생의 전환점으로 유학을 결심해 보스톤으로 왔다. 하지만, 영어의 벽이 너무나 크고 단단해 그 벽을 넘기 위해 4년 간 한국인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무장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졸업 후 '에세이 스토리'를 창업, 대학 입시생들의 에세이를 교정해 주고 있다. 이제 그는 이번 아리랑 플래시 몹을 하버드 스퀘어에 남기고 조지타운 워싱턴 대학의 MBA 과정에 진학, 미래의 꿈인 스포츠 구단 경영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 hcki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악의 아름다움, 한인들 탄성

영어 해설 곁들여 묘미, 고품격 연주 큰 호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을 찾은 국악 전문인들의 공연이 300여명의 청중을 동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 주최로 이루어진 국악공연 'Soul of Korea 2014' 는 지난 3월 15일(토)과 16일(일) 양일 간 앤도버의 웨스트 패리쉬 교회와 브랜드이스 대학교에서 개최돼 지역 한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한국음악을 알리고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미국,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젊은 국악인들 5명이 연주

를 보였고,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힐러리 핀첨-성 교수가 해설을 맡아 악기와 곡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연주자들은 이틀간 정악합주 '상령산',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소리꾼 안이호는 독특한 음색과 다양한 표현으로 삼국지의 조조 이야기 적벽가를 판소리로 풀어냈다. 적벽가가 공연될 때는 영어 자막이 제공돼 한국어를 모르는 청중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공감할 수 있었다.

가민과 유홍은 생황과 대금의 이중주인 '수룡음' 을 연주, 신비로운 음색으로 객석을 압도했으며, 박이슬은 섬세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가야금을 연주했다.

각 무대마다 장구 혹은 북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받쳐준 타악기 연주자 최소리는 단독 무대에서는 강렬한 설장구를 보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대금으로 현대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있는 유홍은 혼신의 힘을 실어 대금 산조를 연주했으며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민은 향피리와 세피리, 생황, 태평소의 여러 악기들을 번갈아 연주하며 다양한 색채의 소리를 전해주었다.



곡과 악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핀첨성 교수

청중들은 연주와 함께 핀첨-성 교수의 명쾌한 해설을 들으며 민속음악과 정악의 다른 분위기, 장단의 변화나 국악의 역사, 악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공연 후 상당수 미국인 청중들은 새롭게 들어본 한국음악이 놀랍고도 멋지다고 입을 모았으며, 한인들은 오랜만에 듣는 한국의 전통 음악에 취했다고 흡족함을 표했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교수는 "금발의 핀첨-성 교수가 한복을 입고, 다수의 한인이 포함된 청중들에게 영어로 한국음악을 소개했던 이번 공연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과 교감이 있었던 의미있는 시도였다" 고 전했다.

이 공연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브랜드이스 대학교가 지원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협찬하였다.

한미예술협회의 다음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주미씨(NEC 예비학교 교수)가 중심이 된 실내악 연주회가 될 예정이다.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hckim@bostonkorea.com



국악전문인들의 공연 모습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4

Saturdays (SAT II June 7, 2014)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PM Start 3/29 - 5/31
SAT II/AP Biology	11:30AM - 1:30PM Start 3/15 - 5/31
SAT II/ AP Chemistry	2:00PM - 4:00PM Start 3/15 - 5/31
SAT II MATH IC	5:30PM - 7:00PM Start 3/29 - 5/31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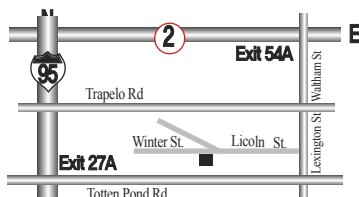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지난해 정치인턴십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경해 시민협회장 및 김성군 이사장과 기념촬영에 있다

시민협회 정치인턴십 장학금 모금만찬 개최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기조연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하 시민협회)가 오는 4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에서 2세 정치인턴십 장학금 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이날 만찬에는 이번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던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주연설자로 선다.

시민협회는 지난해까지 총 56명의 정치인턴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선발된 인턴들에게는 여름방학 동안 주지사 사무실, 연방상원위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시민협회가 매년 2세들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한인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사항은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제 강연자 마크 김 의원〉



마크 김 하원의원(46)은 지난 2009년 실시된 미국 지방선거의 버지니아주 35선거구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첫 한국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이다.

김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흑인폭동 사건 당시 경찰이 소수계보다 주류인 백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카이스트 총장과 MIT 공대학장을 역임했던 서남표 교수가 보스톤 M Concert의 세번째 게스트로 초대되어 오는 23일(일) 오후 5시 30분,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진정한 교육 이야기’ 를 들려준다.

1964년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평생을 교육자로 종사한 서남표 교수는 이번 M Concert에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학생들과 교육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Post Doctors,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카이스트 총장직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MIT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한 흠플러스 회장과 바람의

딸 한비아 씨에 이어 서남표 교수와 함께 오는 세번째를 맞이 하는 M Concert는 Mentoring (멘토링), Management (자기경영), Music (음악)이 어우러져 명사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즐겁게 풀어가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보스톤 대학교 경영대학 이유택 교수가 진행하고 이승한 밴드의 드러머 최기웅 씨 등으로 구성된 밴드가 함께 한다.

이번 M Concert는 보스톤 한인교회와 Korean American Cul-

tural Foundation이 공동 후원한다. 문의는 610-207-2120, kmin.lee10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일시: 3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hckim@bostonkorea.com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후견자 역할을 해온 일리노이주 출신 디 더빈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정치수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 출생으로, 목사인 아

버지를 따라 베트남과 호주의 이민생활을 거쳐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으며, 어바인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과기협 수학 경시대회

유익한 강연도 준비, 4월 5일 등록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지역 한인학생 중 수학에 자신 있는 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경시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4월 12일 오후 1시부터 MIT (35동 225호)에서 진행되는 수학경시대회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재형)와 MIT 한인 학생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및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 (4-11학년)은 오는 4월 5일까지 과기협 홈페이지 <http://www.ksea.org/nmsc/>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온라인 신청 시 25달러, 현장 등록 시 30달러이고 온라인 등록을 한 학생들에 한하여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장 등록 및 온라인 등록자 접수 확인은 1시까지이며 시험실 이동 시간인 1시30분까지 시험 규칙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예제 및 정답은 과기협 홈페이지 <http://www.ksea.org/nmsc/> 에서 제공하므로 미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대기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유익한 강연이 준비된다.

강연은 보스톤교육원의 정준기 원장이 “가장 효율적인 명문대학 준비 방법” 을, 헤민한의원의 박미경 원장이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건강관리

법” 을 준비했다. 또한 시험 시간 종료 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리얼 토크 시간이 준비된다. MIT 학부 학생들이 나서 ‘공부하는 법과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 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를 맡고 있는 조진행 과기협 부회장은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이라며 “이 행사를 위해 매년 여러 한인단체가 후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부상 및 경품도 다양하게 제공될 예정이어서 여러모로 유익하고 풍성한 자리가 될 것” 으로 기대를 전했다.

이 대회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KSEA, 이하 과기협)에서 주최하는 전미(全美)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를 겸하는 행사로 매년 참가 학생수가 2,000명을 넘는 대규모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수상자는 전미 수상자 후보로 자동 선정된다. 뉴잉글랜드 지역 상당수 학생들이 매년 전미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참가나 행사 후원을 위한 문의는 조진행 부회장 (781-266-6990, contact@kseane.org)에게 하면 되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 <http://www.ksean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ckim@bostonkorea.com

재미과기협, 2014년도 학부, 대학원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KSEA, 회장 이명종)가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장학생’ 을 모집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 의학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재미과기협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학부생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친 상태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에게 자격

이 주어진다. 학부나 대학원생 모두 신청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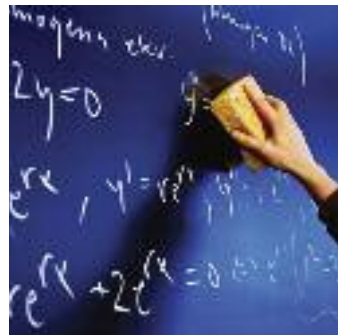
학부생 장학금은 총 25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000 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정민근)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대학원생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25명에게 각 1,500달러씩 수여된다.

학부생 장학금 수여는 협회 본부에서, 대학원생 장학금은 오는 8월 6일-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2014 한미학술대회’ (UKC2014)에서 수여된다.

대학원 장학생들은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에 참가해야 하며 5월 말까지 발표할 논문의 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행사 참석을 위한 여행경비와 숙박비는 협회측에서 보조한다.

학부와 대학원 장학생 응모마감은 4월 15일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등이다.

재미과기협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는 신청자들의 성적과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 및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장학생 명단은 5월 중



재미과기협 웹사이트 <http://www.ksea.org> 에 게재된다.

장학생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scholarship.ksea.org>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응시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문의 : 재미과기협 본부 hq@ksea.org, 703-748-1221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19일 총영사관에서 고별 인터뷰를 진행하는 박강호 총영사의 모습



▶▶1면에 이어서

이임 소감 첫마디 “정들었는데 아쉽다”

업유치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인구가 비교적 빈약한 보스톤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많았다. 한국을 방문할 때면 늘 생각해 보는 보스톤-인천 한국 항공 직항 노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 총영사가 가장 아쉬워했던 일이다.

이처럼 대부분 생각에 그쳤던 것을 실천에 옮겨 이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삶의 특별함을 누리게 됐다.

이렇듯 보스톤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던 박강호 총영사, 그가 21일 이임한다. 총영사와 첫 간담회를 가진 후 정확히 3년 그리고 3월만인 19일 오후 같은 장소인 뉴튼 소재 총영사관에서 박 총영사와 고별 인터뷰를 가졌다. 3년 세월 동안 정말 빠르게 느껴졌다.

▶2011년 3월 9일 부임해 첫 부임 인터뷰를 3월 16일 가졌다. 오늘이 3년 3월만이다. 외교부 생활에서 첫 공관장 역할

을 마감한다. 소감은 어떤가?

아쉽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협력해서 많이 일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쉽다. 개인적으로 첫 공관장으로서 부임지고 해서 애정과 열정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난 임기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기억에 남는다.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잘 협의가 되어서 2011년 8월에 자동차면허청장(RMV)하고 서명했다.

오랜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보람도 있었고 기뻐다.

▶부임전 몇가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 운전면허 상호교환 두번째로 기업유치순이었다. 기업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기업유치라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가시적 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한인 인구가 적어 한인 기업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생명과학 쪽 유치를 위해 힘썼는데 참 어려웠다. 투자 자금이 막대하고 투자 기간이 길어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아지고 있다. 삼성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진출, 연구를 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 부 장관과도 창조 경제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현대 로템에서 2층 객차를 계약해서 금년 9월까지 75량 전달하게 되어 있다. 지난주 매사추세츠 교통부장관 리처드 데이비드를 만났는데 ‘차량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조그만 프로젝트이지만 잘 마무리가 됴으로써 한-매사추세츠 경제 협력이 발전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스톤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 데이비드 장관에 따르면 오렌지, 레드 라인 일부 트레인 교체 계획이 있는데 5월달에 입찰 시작한다. 현대 로템에서 입찰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2층 객차 제작을 잘 마무리하고 오렌지, 레드라인에서도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가장 공들여 추진했던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운전면허 협정이었다. 그게 제일 공들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 향상이었다. 월요일 근무연장 서비스는 동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다음 문화, 협력, 학술 교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

한국이 보스톤지역에서 인지도가 나아지고 있지만 미흡했다. MIT 한식 행사도 있었고 알공관 클럽에서 한식 알리기 행사도 열었다. 지난해 4월에는 컨설스 볼 주변국으로 한국을 알렸다. 매사추세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알리는 행사도 가졌다. 보스톤미술관 재개관도 주요 이슈였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면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월요일 민원 근무연장은 총영사 이임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잠시 생각하다) 그렇다. 계속 될 것이다.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하신 일은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아쉬운가?

직항 문제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많이 고민하고 코리아나, 아시아나 관계자와 만나서 취향 검토해 달라했는데 (두 업체는)비즈니스 차원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비행기 뜨는데 1억 이상이 든다고 들었다. 수지가 맞기 위해서는 2백석 규모의 70-80%가 차야 한다. 한인인구 3만은 적다. 또 비즈니스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긴밀해야 꾸준한 승객도 되고 화물양도 되고 그래야 나름 성사가 된다. 아쉽지만 그것은 아직 어려울 것 같다.

▶매사추세츠 로건 공항은 5개국과 직항 노선을 트는 등 직항 유치에 적극적이다. 특히 일본인구는 1만여에 불과한데 직항이 있지 않는가?

사실 실제 일본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총영사에 따르면 경제 관계 쪽으로 강하다. 매사추세츠 경제에서 일본이 3위 (수출)마켓이지만 한국은 7-8위 마켓이다. 중요한 것으로 일본 제약업체들이 이곳에서 1만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일본 직항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3년간 경험한 보스톤 한인사회는 어떠한가? 혹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인사회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잘하는 것 같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같은 경우 작년에 회원 1천명 가입운동을 전개했는데 아주 잘 한 것 같다. 소송 문제도 아주 잘 처리했다. 일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주 한인회도 활동을 잘하는 것 같다.

바라는 점은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신장됐으면 좋겠다. 한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 또 입 후보도 하고 펀드레이징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그게 한인사회에 결국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러 단체장들과 취재 기자의 평가를 종합하면 열정적이었으며 한인사회 작은 일까지 과다할 정도로 쫓아다녔다고 들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탁협회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있다.

변명일수도 있지만 세탁협회는 저를 초대하거나 같이 했던 행사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저에게 참석해달라는 행사는 거의 빠진 적이 없다.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주말에 거의 다 참석했다. (세탁협회에서도 뚜렷한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했다)

▶영화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 <집으로 가는 길>을 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저는 그 영화에 대한 해외 공관장으로서의 평가는 어떤가?

영화는 주목을 끌기 위해 사실관계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안길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와 좀 다르게 각본한 것 같다. 사실 재외 공관의 영사들은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김동식 마라톤 부상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집사람과 같이 병문안도 갔다. 모금에도 총영사관이 가장 앞장서지 않았다. 지금의 공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 현실과 영화는 구별해주면 좋

겠다.

▶한인들에게 작별 지면 인사를 남겨 달라.

3년 동안 우리 보스톤, 뉴잉글랜드 한인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떠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만 여기서 맺었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해 이어지길 바랍니다. editor@bostonkorea.com



지난 2011년 3월 부임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박강호 총영사에게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지역 한인들을 대표해 감사장을 전달하자 박강호 총영사가 고별인사를 전하고 있다(좌)/ 장수인 서울대동창회장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우)

박강호 총영사 이임, 귀국 한인회 환송식 겸 감사장 전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박강호 주보스톤 총영사가 3년 보스톤 공관장의 임기를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지난 2011년 3월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부임했던 박 총영사는 부임 첫주부터 하버드와 MIT,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등을 방문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시찰한 한편, 총영사관 민원 시간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첫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3년 임기 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을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교민들의 편의에 힘썼으며, 각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행사마다 참석해 교민들과 가까운 공관의 이미지를 굳혀왔다.

특히 한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행사 후원에 적극적이었으며, 미 주류사회에 한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한편, 지역 노인들을 공경하는 데 또한 잊지 않았다.

박강호 총영사의 귀국을 두고 남궁연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 위원장은 “보스톤 총영사관이 생긴 이래 10대째 총영사를 보내는 마당에 박 총영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며 “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의

미”라고 평했다. 박 총영사의 귀국을 앞두고 보스톤 한인단체장들은 환송식을 갖는 등 분주했다.

특히 뉴잉글랜드한인회 한선우 회장은 로드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한인회장과 지난 14일 금요일 오후 12시 캠브리지에 위치한 코리아나 식당에 모여 박총영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환송식을 개최했다.

한 회장은 “한인사회 발전 위해 이바지한 데 대해 한인들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모았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한인회장 직에 오른 후 발품을 많이 팔아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행사마다 동행해 줄 정도로 구석구석 한인사회를 돌아 보았다”고 평하며 한인들을 대표해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박 총영사는 “보스톤 한인사회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좋은 한인들을 만난 덕에 좋은 일을 하고 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본국에 돌아가서도 보스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겠다”고 고별 인사를 전했다.

박 총영사 환송식에는 뉴잉글랜드한인회 한문수 수석부회장과 장수인 부회장, 남궁연 한인회관 재산관리위

원장과 안병학 월드 옥타 보스톤 지회장, 그리고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과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김영숙 전코리아나 대표 등도 참석해 고별 인사를 전했다.

또한 로드아일랜드한인회와 서울대 동창회에서도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기념품을 박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지역 한인들이 전한 박강호 총영사에 대한 총평이다.

이경해 시민협회장: 한인 2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차세대 포럼을 전폭적으로 후원한 한편, 시민협회가 배출한 정치인턴들과 자주 만나 격려의 자리를 갖는 등 차세대들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다.

한선우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한인회장 직에 오른 후 발품을 많이 팔아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행사마다 동행해 줄 정도로 많이 참석하는 등 구석구석 한인사회를 돌아 보았다.

홍진섭 전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장: 교민들의 대소사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격려해 준 박강호 총영사는 어느 총영사보다 발로 뛰는 역동적인 분이였다. 동포사회와 정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냈으며, 한인단체들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교환 등 교민들을 위한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쓴 분이였다.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장: 모든 뉴잉글랜드 한인들 행사에 적극 참석하는 한편 관저로도 초대해 식사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등 역대 총영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였다.

윤미자 전 한국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지회장: 한국학교에 각별히 마음을 쓰셨다. 바쁜 일정에도 매 행사마다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한국학교 교

장 및 협의회 임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듣고 개선하려 노력하셨다.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사 전문성이 향상되어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동포 2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셨다.

hckim@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오는 7월까지 지역 예선

김을 비롯해 서인국, 존박, 허각, 정준영, 흥대광, 유승우, 버스커버스커 등 다양한 실력과 뮤지션들을 배출해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등극, 스타의 등용문이 되었다.

슈스케 6는 오는 7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쳐 8월 중 본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1차 예선은 UCC와 엠넷 스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차 예선 통과자 및 현장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원자들은 <http://superstark.interest.me>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현장으로 가면 된다.



지난해 슈스케5 보스톤 예선에서 합격, 본선에까지 진출해 화제가 주인공이 되었던 버클리음대생 임순영 씨의 예선전 모습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uperstark.interest.me/support/guideUcc>를 참조하면 된다.

슈스케 6 예선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hongkong1218@cj.net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브라운대 학생들, '북한 인권과 통일 한국 비전' 관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한 인권과 통일 한국 비전' 을 주제로 한 포럼이 브라운 대학에서 개최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15일 토요일 브라운 대학의 살로몬 센터(Salomon center)에서 진행된 이 포럼은 김종성 교수(브라이언트대)와 황우성 연구교수(하바드대)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북한의 실태를

진단하고 통일 한국의 비전을 예상하였다.

경제학자인 김종성 교수는 통계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일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척박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예상을 전했다.

과거 소련 사회의 붕괴 시기에 러시아에 거주했던 황우성 교수는 실제적인 체험에 기반해 통일 문제를 다뤘다. 황 교수는 옛 러시아의 붕괴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으며,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통일 후 러시아의 과학 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재휘 부총영사는 "최근 여러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남북한의 문제도 이제 세계인의 이슈가 되었다" 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호전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아와야 한다" 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브라운 대학 한인 학생회와 Link 자유북한 동아리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가 후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브라운 대학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및 통일 비전에 대한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7
이철영

뿐만 아니라 (X) → 그뿐 아니라 (O)

우리말 '뿐'은 조사라 말머리에 올 수 없습니다. '뿐만'이라는 말이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할 뿐입니다" (- 이런 경우. 이런 의존명사 역시 말머리에 나오지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는 앞서 얘기했던 "보다"나 "때문에"처럼 잘못된 일본식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읽을 만한 글에서조차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특히 그런 글을 쓸 때엔 조금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보다"

라는 말이 부사로서의 기능이 국어사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끔 국어 속에 침투해 있는 "한국어 기능을 파괴하는 일본어 잔재"를 보고도 그 말이 국어사전에 나온다는 이유로 사전에 나오니까 써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국어사전은 잘못 침투한 일본어를 버젓이 우리말로 수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고쳐야 할 말들이며, 곧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말을 쓰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뉴욕 필하모닉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카네기홀 단독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욕 필하모닉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가 편안한 대중적인 곡들을 갖고 4월 19일 카네기홀에서 단독 공연을 연다.

뉴욕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 공연을 통해 다양한 관객을 만나 온 그가 오랜만의 뉴욕 단독 무대를 갖고 클래식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귀에도 익숙한 생상스, 사라사테, 피아졸라, 차이콥스키, 번스타인 등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장래가 확실한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란 찬사를 받은 오주영은 5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11세 때 미시건주 국제 음악캠프 콩쿨 1위, 14세 뉴욕 영아티스트 국제 콩쿨 최연소 우승 후 전세계 클래식 관계자들의 기대와 집중을 받았다. 화려한 솔리스트 활동도 좋지만 다양한 연주 경력을 쌓고 싶었던 그는 2010년 뉴욕필



입단 후 영재, 천재라는 수식어를 뛰어넘고 균형 잡힌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뉴욕필 입단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초의 한인 남성 연주자 등의 또 다른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바이올린 영재 홍유진 양이 찬조 출연한다. 홍 양은 지난해 KBS 인간극장을 통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바이올린 영재로 소개된 바 있다. 홍유진 양은 얼마 전 16세 최연소나

이로 2014년 서울대 음대에 입학하여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의 이번 공연은 2014년 4월 19일 오후 7시30분, 뉴욕 카네기홀 잔켈홀(881 7에브뉴)에서 열리며 티켓(\$40)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카네기홀 홈페이지 www.carnegiehall.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시: 4월 1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카네기홀(www.carnegiehall.org) hckim@bostonkorea.com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NAKS-NE, 이하 한국학교협의회)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우편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교사 사은회는 2세들의 뿌리 교육은 물론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장기근속 교사 및 우수 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버드 의대 대학 황우성 박사가 특별 강사로 초청되어 "21세기 전망과 미래 과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한국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한국학교협의회는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에 앞서 3월 21~23일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 NE www.naks-ne.org로 하면 된다.

일시: 3월 29일(토) 오후 5시-9시
장소: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d. Woburn, MA 01801
연락처: (781)932-0999
bostonkorean@hotmail.com

소프라노 우상원, The Boston Cellos와 협연 빌라 로보스 작곡 '브라질 풍의 바하No. 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우상원 (Lauren Woo)씨의 The Boston Cellos (음악감독 이현민) 협연 콘서트가 3월 22일 토요일 저녁 8시에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한 First Church in Cambridge(11 Garden St. Cambridge, MA)에서 열린다.

콘서트의 1부순서에서는 8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The Boston Cellos가 브루베크와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을 연주한 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빌라의 로보스 (Heitor Villa-Lobos) '브라질 풍의 바하(Bachianas Brasileiras) No. 5' 를 우상원 씨와 함께 연주한다.

첫 곡인 칸탈레나는 기타 반주와 성악 혹은 기악 편성만으로도 많이 연주되며 널리 사랑받는 곡으로 서정적인 보칼리스토 시작하며, 두 번째 곡인 마르텔로는 빠르고 리듬감이 넘친다.

2부 순서에는 버클리 음대 교수인 티파니 창 (Tiffany Chang)이 지휘하는 뉴잉글랜드 레퍼토리 오케스트라가 모짜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타네를 바이올리니스트 이바나 야소바 (Ivana Jasova), 비올리스트 애나 그리피스 (Anna Griffis)와 협연한다.

The Boston Cellos는 예일대학교와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보스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첼리스트 이현민 씨가 2011년에 시작한 연주단체로, 보스톤 지역의 우수한 젊은 첼리스트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다.

소프라노 우상원 씨는 서울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보스톤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뉴욕과 보스톤에서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였고 보스톤 아

트 아카데미와 웰슬리 공립학교에서 성악과 합창을 가르쳤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bostoncellos.com에서 볼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hckim@bostonkorea.com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박강호 총영사 환송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NAKS-NE, 이하 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임기를 마

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박강호 보스톤 총영사와 오찬을 가졌다. 한국 학교협의회에 의하면 박강호 총영사는 그동안 재외 동포 교육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협의회에 몰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총영사는 귀국 후에도 협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 대상 문학상 작품 공모

동포재단 열여섯번째 개최, 3.13~5.12까지 코리안넷 및 우편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외동포 중 문학 작품 활동을 좋아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16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 공모전이 개최됐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공모는 재외동포 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최하는 것으로, 5월 12일까지 코리안넷 및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응모작품 중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편의 작품과 한 글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한다.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다.

또한 '제3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 공모도 함께 시행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공모전의 주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로이 택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편을 선정, 장학금과 상

장이 수여된다.

'재외동포 문학상' 과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는 동일 일정으로 시행되며 수상작 결과도 7월,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를 통해 동시에 발표한다.

작품접수서식 다운로드 및 접수방법 등은 홈페이지 www.korean.net 을 참조하면 된다.

▲ '제16회 재외동포 문학상', '제3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 접수 안내
△작품 접수기간 : 2014년 3월 13일(목)~5월 12일(월)

△제출서류
- 제16회 재외동포 문학상 : 참가신청서, 재외동포 확인서류, 작품

- 제3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 참가신청서, 작품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

- 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홍보문화부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우: 137-863)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137-863)>
hckim@bostonkorea.com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Sales Associate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주정부, 문제투성이 의료보험 웹 사이트 개발회사 해고 결정

계약 기간, 잔금 지불 일정 등은 아직 불투명
새 회사와 계약하여 11월까지 문제 해결 목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 웹사이트 개발 회사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하였다.

몬트리올에 기반을 두고 있는 IT 기업 CGI 그룹은 오바마 케어에 따른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를 개발하였고,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도 개발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는 물론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나마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는 지난 연말부터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웹사이트는 오바마 케어의

가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가 웹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한 새 라이선스 특별보좌관은 “우리는 CGI와 결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셀린은 헬스 커넥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CGI와의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최종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CGI에 얼마를 지불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CGI와 계약 당시 6천 9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지난 달까지 1천 5백만 달러만 지불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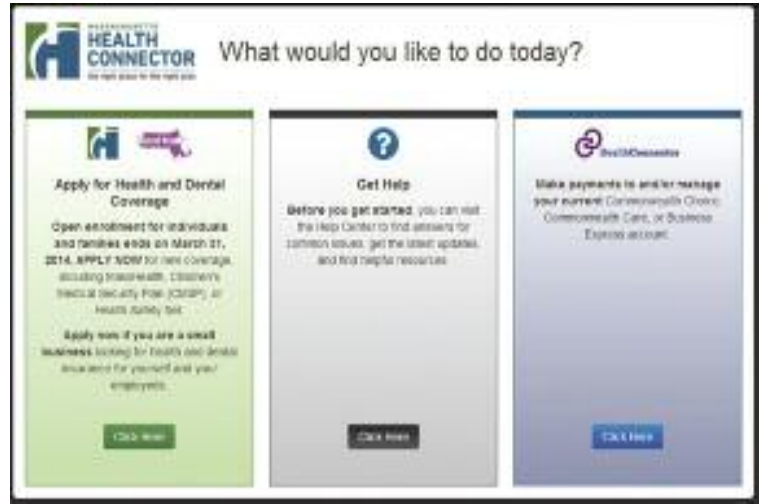
CGI는 성명을 통해 “CGI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끝

없이 노력해 왔다. 이미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개발 회사가 바뀌더라도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계약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셀린은 조만간 새로운 개발 회사를 찾겠지만 기존의 사이트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웹사이트에서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혹은 다른 주의 의료보험 웹사이트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사들여 매사추세츠 주의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까지 의료보험 웹사이트를 정상화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수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좌절시킨 의료보험 웹사이트의 개발 회사가 결국 해고되었다

주말 T심야운영, 이달 28일 시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오랫동안 기다려온 T심야 운영 서비스가 이달 28일부터 시작된다.

젊은 주민, 노동자, 그외 자정 넘어서까지 외부에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보스톤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시와 MBTA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1년간 시험적으로 운영될 이 서비스는 지하철과 그린라인, 그리고 가장 붐비는 15개의 버스노선(1, 15, 22, 23, 28, 32, 39, 57, 66, 71, 73, 77, 111, 116, and 117)을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2001~2005년까지 운영됐던 나

이트 아울(Night Owl) 버스서비스가 이용객 부족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단됐고, 이후 두 번째로 시도된다.

새 심야운영 서비스는 보다 활기찬 야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 마틴 J. 월시의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지난주 언급하 바 있는 바(Bar)와 클럽들의 영업시간 연장과도 맞물린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중단된다. 이 시험 서비스는 주지사 드별 패트릭이 지시했고, 그 결과는 그의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hsqh@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한국인삼공사 부여 고려인삼창

홍삼에도 격이 있다

최고급 6년근 수삼과 최고의 설비에서 탄생한 정관장 제품은 세계 최고의 명품 홍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삼 후 건조과정

115년 노하우의 결정체-부여 고려인삼창
부여에 위치한 고려인삼창은 세계 최고의 역사와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인삼가공 공장입니다. 1000년을 넘게 이어온 한국 고유의 홍삼제조기법과 첨단제조설비를 결합한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명품 홍삼을 만들어 내는 산실입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 제품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원료가 되는 인삼을 위해 인삼경작 예정지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작지만을 선정, 6년근 인삼을 생산합니다. 재배기간 중 추가로 인삼 사료분석, 토양분석,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청정 원료삼과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구매해 만들거나 외주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홍삼제품과는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홍삼의 주요 효능

- 면역력 강화
- 피로회복
- 혈액순환
- 기억력 강화
- 항산화작용
- 간 및 신장기능 개선
- 스트레스 회복
- 당노 및 합병증에 효과
- 성기능 개선 효과

SPECIAL GIFT

3월까지 연장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5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St.파트릭스 퍼레이드, 월시 불참

게이 배제된 퍼레이드에 마틴 월시 시장 불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몇주 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보스톤의 세인트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에 게이들의 행진 참여가 불발에 그치자, 시장 마틴 J. 월시도 이 이벤트에 불참했다.

월시는 “대부분의 안전에 대해 동의했지만 배너에 어떤 글귀가 적힐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며 배너에 제안된 문구인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에 대해 말했다. 월시는 모든 이슈가 “이 다섯 글자로 귀결되었다” 고 했다.

이십 년 동안, 게이 남성과 여성들은 퍼레이드에서 공공연히 행진하는 것을 거부당해 왔다. 월시는 마지막까지 주의 게이 인권단체 MassEquality와 퍼레이드 주최측 Allied War Veterans Council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는 언어 문제에 부딪치며 무너지고 말았다.

퍼레이드 주최측은 “게이” 또는 성적기호를 선언하는 어떠한 옷이나 꽃말도 허가하지 않았다. MassEquality는 이러한 표식이 없다면 행진하지 않겠다고 팽팽히 맞서며, 주최측이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MassEquality의 책임자 카라 코레디니는 지난 16일 “배너 없이 행진하도록 요구받은 단체는 우리 외에 아무도 없다” 고 지적하고 “우리의 현 주소는 이중잣대이며 진보에 어긋나는 행보” 라고 주장했다.

코레디니는 또한 “올해에 행진하지 못한 점에 실망하기는 했지만, 끝



연례행사 St.파트릭스데이 블래퍼스트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

까지 노력해준 시장님께 감사한다” 고 밝히고 “내년에는 MassEquality와 같은 또 다른 LGBT단체들의 퍼레이드 참가지원서가, 그들 단체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받은 채로 받아들여져, 아이리쉬 전통과 참전용사들의 의무와 희생을 기리는 이 퍼레이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반면, The Catholic Action League는 퍼레이드 이후, 주최측이 “믿음과 도덕, 헌법의 권리를 완고히 지킨 것” 에 대해 축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퍼레이드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려 했던 호모섹슈얼 단체는 세인트패트릭이나 아이리쉬 문화에 대해 어떠한 이해도 없으며, 카톨릭교에 대해 경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는 내용과 함께 “MassEquality는 이번 퍼레이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 는 비평을 실었다.

월시는 지난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한 자리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평등권을 위한 싸움을 이전 자유권을 위해 가져왔던 전투들과 평행선에 두어 주목을 끌었다.

“세인트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는 Evacuation Day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다. 자유를 위해 목쳐 싸운 용감한 미국인들과 군대에게 명예를 돌리기 위해 생긴 바로 그날이다. 우리의 아이리쉬 역사 대부분 또한 박해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빛어졌다.” 고 월시는 말했다.

퍼레이드 이후 인터뷰에 응한 월시는 퍼레이드 경로에 다양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등장한 것에 “큰 도약” 이라며 찬사를 표했다. 게이 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사우스 보스톤 주민으로서 행진한 호모섹슈얼 참가자들과 함께 등장한 조형물이다.

hsoh@bostonkorea.com

중고 게임 교환하고 월마트서 장본다

월마트 중고 게임 기프트 카드로 교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인 월마트가 중고 비디오 게임을 가져오면 기프트 카드로 교환해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6일부터 월마트와 샘스 클럽은 소비자가 가져오는 중고 비디오 게임을 최대 35달러까지 보상해준다. 교환 가능한 비디오 게임 타이틀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의 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등이며 오리지널 박스에 담아서 가져가야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월마트는 게임의 개수와 기종에 상관 없이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으며 교환 액수는 얼마나 오래된 게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게임을 교환해 받게 되는 기프트 카드는 미국 내 3,100여 개의 월마트 매장은 물론 온라인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게임 시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이며, 우리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고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이미 게임스탑이나 베스트바이에서 중고 게임을 다른 게임이나 전자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월마트에서는 중고 게임으로 식료품이나 다른 공산품과 같이 게임과 관련이 없는 물품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월마트는 사들인 중고 게임을 다시 포장 하여 “Certified Pre-owned”라는 스티커를 붙여 유통할 때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만 약 10억 개 이상의 게임이 사용되지 않고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월마트는 추정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애완견 라이선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애완동물 소유주들의 애완견 라이선스 신청과정이 온라인을 이용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접수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시청 당국이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 방법은 주민은 물론 시의 ‘동물관리 및 규제 부서 (Animal Care and Control Department)’ 모두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시 당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타사 공급업체와 함께 작업할 것이며 한번 업무를 볼 때마다 최소 1불에 해당하는 2.95%의 온라인 수수료가 붙을 것이다.

시청은 또한 허가증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을 올려림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만약 소유주가 허가증을 받지 않을 경우 강제로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hsoh@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사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Acton 콘도 \$249,000, 2beds, 1.5baths, 1,370 sq ft(학군 좋음)	 Natick 콘도 \$469,050, 2beds, 2baths, 1,323 sq ft (물과 private 도로)
 Lexington 단독주택 \$1,469,000, 5beds, 4.5baths, 7,405 sq ft(2014 새집)	 luxury harbor tower 콘도 \$519,000, 1bed, 1bath, 753 sq ft(실내 수영장)
 Wesford 단독주택 \$650,000, 4beds, 3baths, 1,986 sq ft(역대 수영장 빌린 집)	 Cambridge Luxury Apartment 방달 또는 두달 무료임금

유명 프랑스 레스토랑 9월 보스턴에 오픈

프랑스 셰프 다니엘 볼루드(Boulud)의 '더 볼루드' 만다린 오리엔탈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셰프 다니엘 볼루드(Boulud)가 오는 9월 보일스턴 스트리트 소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 문을 연다.

그동안 세계적 유명 프랑스 레스토랑의 무덤으로 여겨져 왔던 보스턴에서 볼루드는 또 한번 프랑스 레스토랑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게 된다. 보스턴은 그동안 프랑스 셰프가 아닌 레스펠리에(L'Espalier)와 같은 보스턴 자생 프랑스 레스토랑이 강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볼루드는 같은 호텔내에 레스펠리에와 함께 자리할 예정이어서 보스턴 판 프랑스 레스토랑과 프랑스 유명셰프 출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레스펠리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지향하며 고가의 음식으로 보스턴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반면 바 볼루드 레스토랑은 좀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운

영하며 가격도 분요리가 \$30-40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볼루드는 프랑스의 유명 셰프로서 뉴욕, 런던, 싱가포르, 몬트리올 등에 그의 이름을 브랜드로 한 레스토랑이 개점해 성업중이다.

그보다 먼저 보스턴에 도전한 유명 프랑스 셰프들의 레스토랑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장-조지 봉저리첸(Jean-Georges Vongerichten)의 레스토랑(마켓)은 화려하게 보스턴 W호텔에 입성했지만 4년을 버티다 문을 닫았다. 비록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값에 걸맞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던 가이 마틴이 운영하는 센싱은 페어몬트 배터리 와프 호텔에 자리했지만 겨우 2년만 버티고 문을 닫았다.

이 같은 유명 프랑스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실패하는 첫번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요리하거나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보통 라이선스만 빌려주고 호텔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레스토랑은 다른 주인이 운영한다. 유명 셰프들은 모습을 거의 비치지 않고 결국 이름만 걸려있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이들 레스토랑들은 손님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한 레스토랑은 종업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결국 낮은 마진율로 운영되는 식당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번 9월 오픈하는 바 볼루드는 다니엘 볼루드의 뉴욕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아론 챔버스가 수석 요리사를 맡는다. 바 볼루드는 현재 미국 레스토랑 아사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유명 셰프 다니엘 볼루드(Boulud)가 운영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들어서 레스펠리에와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보스턴헤럴드 명예훼손 56만불 배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09년 한 여성이 감옥에서 살인범과 성행위를 벌여 경고장을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죄 판결을 받았다.

서픽고등법원 배심원들은 조아나 매리노바가 보스턴 헤럴드와 해당 기자 제시카 밴색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563,052 배상판결을 내렸다. 15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배심원들은 기사 중 3 부분이 거짓이며 이중 2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매리노바의 변호사 데이비드 라이시는 이번 판결이 매리노바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매리노바는 주 감옥 죄수들의 환경개선 운동가로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매리노바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글로리아 팩스 의원과 함께 브리지워터 소재 교도소를 방문했다.

헤럴드는 팩스 의원과 매리노바가 교도소의 검문을 받지 않고 통과했으며 이는 주 하원의원이

란 신분 때문이었으며 또한 학교 도관에 따르면 매리노바가 팩스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썼다. 헤럴드는 또 매리노바가 살인범과 성행위를 벌여 경고를 받았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리노바는 보좌관이 아니었고 팩스 의원이 만나러 간 살인범 데럴 존스의 연인이었다. 매리노바는 팩스 의원의 연인이 아닌 이미 방문 2일전 주 교도부로부터 입장 허락을 받은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데럴 존스는 2008년 면회 당시 매리노바에게 키스하고 무릎을 만졌던 이유로 경고를 받았지만 매리노바는 결코 존스와 성행위까지 벌인 적이 없었다. 키스와 무릎을 만지는 것은 교도부의 규정상 성행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추후 기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헤럴드는 여전히 당시의 기사가 정확하며 결코 틀린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는 또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sb@bostonkorea.com

STATEMENT OF THE BOSTON HERALD

The Herald has stated since its May 28, 2009 article on a major security breach at GM Colony Prison was published that its article was entirely correct, from its headline to its last line. The article was meticulously researched, carefully written and extremely well-documented. We are proud of it, and of the journalist who wrote it.

The article was not only excellent, but important, leading as it did to a Department of Corrections investigation and certain reform measures. Lawsuits like the one filed here are serious threats not only to the rights of a free and robust press, but to the rights of the citizenry that expects, and depends upon, that free and robust press.

The Herald fully expects to ultimately prevail in this matte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한,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임원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병원 재활의학과 수마(이)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임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삼육대학교 외과 교수
영남대학교 교수 | 외과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송 윤주 Realtor
SHAWMUT PROPERTIES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Exclusive listing - Cambridge Townhouse
\$799,000 / 2 Bed 2 Bath / 1477sq
최고의 위치
Fully Renovated 조용한 고급하우스같은 타운하우스
운동바닥 / 새로운 전기 난방 시스템 / 세탁기 / 콘차고

최고급 디자이너 화장실
개인 야드 / Dock / Court Yard
하버드 까지 도보로 10분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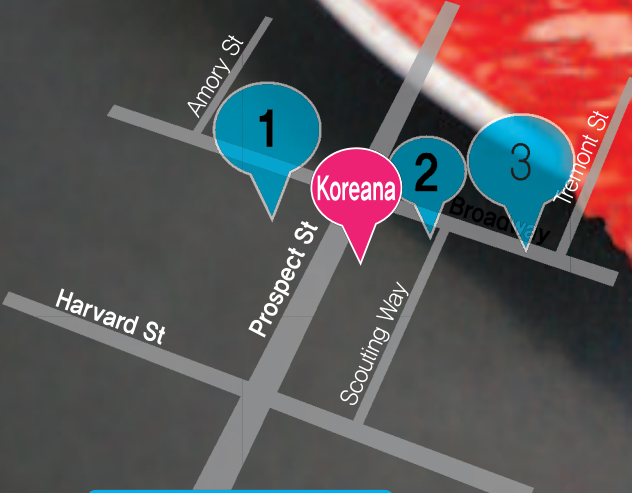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3) 재정설계사의 교육

일반 투자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설계사를 찾아가입니다. 몇십 년 동안 마련한 은퇴자금을 잘 운용하여 남은 인생을 조금 여유 있게 살아 보자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재정설계사의 배경에 대해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WSJ) 신문에 나온 칼럼 하나를 소개합니다. 2월 15(2014)일 자에 발표되었으며 이 글을 쓴 분은 제이슨 즈웨이그 (Jason Zweig)로 매주 토요일마다 재정에 관한 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떠나 객관적인 의견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테이블 베이 (Table Ba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재정설계사를

훈련시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재정설계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마다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재정설계사가 파는 상품 대부분은 '어뉴어티 (annuity)'와 같은 종 목입니다. 요즘에는 보험을 파는 사람,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브로커, 등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사람이 '재정설계사'라는 직함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파는 사람은 '세일즈 (sales)'하는 사람이지만 투자를 제대로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물건은 파는데 수수료 (commission)를 많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면 높은 수수료를 파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테이블 베이 회사에서 나온 두 개의 이메일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메일은 재정설계사가 어뉴어티를 750만 달러까지 판매하면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머세라티 (Maserati)' 최 고급 차를 제공하며 6백만 달러까지는 BMW, Range Rover, Porsche와 같은 고급 차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어뉴어티를 팔 때마다 9% 수수료를 재정설계사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이블 베이는 재정설계사를 교육할 때 어뉴어티를 어떠한 식으로 파는지도 설명합니다. 투자자를 모이게 하려고 공짜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러한 손님들을 "shoppers" 혹은 "plate-lickers"라고 말합니다. 접시를 혀로 깨끗이 비우는 사람이라고 모이는 손님들을 우습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뉴어티 등을 팔 때 이러한 말을 대부분 합니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주 폭락과

금융위기를 경험한 투자자에게 매우 솔직한 말입니다. 여기에 평생 수입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면 너도나도 어뉴어티에 투자합니다.

파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비싼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몇 퍼센트 수입을 평생 보장한다면 투자자 대부분은 이자 혹은 수익률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원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커다란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시중 이자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뉴어티는 어떠한 뛰어난(?) 투자로 5~6% 이자를 손님에게 보장하고, 9% 수수료를 재정설계사에 지급하고, 모든 비용도 나와야 하고, 회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뉴어티를 만든 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테이블 베이 설립자 (Mr. Buklakites)는 매년 250회의 세미나를 재정설계사와 같은 사람에게 한다고 자랑합니다. 은퇴설계에 혁신적이며 은퇴자금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람은 은퇴펀드에 관한 모든 운용에 대해서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뉴어티와 같은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가 없기에 재정설계사 등을 통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자는 재정설계사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재정설계를 도와주는지를 확인하라는 부탁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피와 땀인 나의 소중한 은퇴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R. 21, 2014 - MAR. 27,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Spring BREAK MEANS STOCK-UP SAVINGS!

즐거움 봄방학 특별세일전! ★★★★★
 THE KIDS ARE HOME, STOCK UP THE FRIDGE!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할 유산품 발효유!

<p>WITH SMART SAVINGS CARD</p> <p>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12.55 oz.</p> <p>\$4.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2.82 oz.</p> <p>\$1.49</p>	<p>HAIOREUM Yogurt Flavored Drink 해오름 요구르트 2.2fl.oz. x 20ea./pkg.</p> <p>\$1.99</p>	<p>ZOJIRUSHI Stainless Vacuum Bottle 조지루시 보온병 SF-CC20XA/2L/ea.</p> <p>\$34.99</p>
---	---	---	---

HMART CAMBRIDGE COMING SOON

Always expanding and reinventing for your ever evolving palate!
 America's NO. 1 Asian-American supermarket is coming to Cambridge. Experience one-stop shopping at its best with the freshest groceries, superior home goods, friendly service, Asian-inspired food court.

미국 내 아시안마트 NO.1 마트가 캠브리지에 곧 오픈합니다.
 1년 365일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들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들, 최고의 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고품격 원스탑 쇼핑공간 마트 캠브리지점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MART CAMBRIDGE (Red Line @ Central Square Station)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customer_care@hmart.com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p>WITH SMART SAVINGS CARD</p> <p>OTTOGI Jin Ramen 오투기 진라면 Hot/Mild 4.23oz. x 20ea./box</p> <p>\$11.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밭도독 김 들/재래/싸레 3.5oz.</p> <p>\$3.4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shabu 샤브샤브용 차돌박이</p> <p>\$8.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Beef Bones 사골</p> <p>\$0.99</p>	<p>PRODUCT OF KOREA</p>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box</p> <p>\$20.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p> <p>\$1.38</p>				
<p>WITH SMART SAVINGS CARD</p> <p>Kabocha 단호박 lb.</p> <p>\$0.88</p>	<p>WITH SMART SAVINGS CARD</p> <p>I LOVE TOFU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p> <p>\$0.88</p>	<p>WITH SMART SAVINGS CARD</p> <p>Green Leaf Lettuce 그린 상추 bun.</p> <p>\$0.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Pork CT Butt 냉동 돼지족살 lb.</p> <p>\$4.99</p>	<p>FRESH</p> <p>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lb.</p> <p>\$7.99</p>	<p>FRESH</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별집 삼겹살 lb.</p> <p>\$5.99</p>				
<p>FROZEN</p> <p>Salted Pacific Saury 자반 꽂치 lb.</p> <p>\$2.99</p>	<p>FROZEN</p> <p>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300-500 size lb.</p> <p>\$1.99</p>	<p>FROZEN</p> <p>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p> <p>\$14.99</p>	<p>FRESH</p> <p>Uni 성게알 (우니) 60g/pkg.</p> <p>\$6.99</p>	<p>FRESH</p> <p>TONGTONGBAY Dried Shrimp 통통배 두절 건새우 5oz.</p> <p>\$6.99</p>	<p>FRESH</p> <p>HARU HARU Med.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s.</p> <p>\$12.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AIOREUM/NATURE'S Barley 해오름/자연담은 보리/통보리 4 lbs.</p> <p>\$3.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AIOREUM Cooked White Rice 해오름 순밥 7.4oz. x 6ea./pkg.</p> <p>\$7.4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NOODLE LOVERS Noodles 면사람 산동간짜장/사천짬뽕/옛날우동 13.7 - 24oz.</p> <p>\$4.4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OTTOGI Pizzagheti 오투기 피자게티 Seafood Pizza/Pizza/Shrimp Cream Sauce 9.34 - 12.69oz.</p> <p>\$2.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OTTOGI Rice Tteokboki 오투기 떡볶이 Rice/Pizza 10.58oz.</p> <p>\$2.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SAJO Lohi Canned Tuna 사조 로하이 참치 Mild/매운/비베쿠/비베쿠/아재참치 5.29oz. x 3cans/pkg.</p> <p>\$5.4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FILIPPO BERIO Olive Oil 필리포 베리오 올리브 오일 Regular/Extra Virgin 50.7fl.oz.</p> <p>\$9.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KUMHO Tank Lock Food Container 금호 탱크락 밀폐용기 20L/ea.</p> <p>\$14.9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ELLO HOME Fry Pan 헬로홈 후라이팬 30cm/ea.</p> <p>\$7.49</p>	<p>WITH SMART SAVINGS CARD</p> <p>Hinoki Wood Slim Chopping Board 히노키 슬림도마 Large/ea.</p> <p>\$19.99</p>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스타벅스에서 와인과 안주 판매

매출 증진 위해 저녁 시간대에 와인, 맥주 그리고 술안주까지 판매키로

(샌프란시스코 = 연합뉴스) 스타벅스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저녁 시간에 와인·맥주와 술안주를 판매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의 도시 지역 매장 수천 곳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OO) 트로이 울스테드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0년 시애틀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이후 '스타벅스 이브닝스 메뉴'라는 이름으로 와인·맥주·술안주와 간단한 식사,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시

범사업을 해 왔다. 시범사업은 현재 시애틀, 시카고,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의 40여개 매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밤에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극장이나 음식점 밀집 지역에 있는 매장이 많다.

울스테드 COO는 "여러 시장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시험을 해 봤다"며 "이브닝스 메뉴를 제공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시간대 매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브닝스 메뉴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스과클링 와인, 로제 와인, 스과클링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등 와인 10여종, 맥주 등이 있다.

또 치즈 안주, 닭가슴살 꼬치, 대추베이컨 말이, 마카로니와 치즈, 피자빵, 초콜릿 풍류, 치즈케이크 브라우니 등 술안주와 간단한 식사도 제공된다.

다만 이브닝스 메뉴가 모든 스타벅스 매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커피 외의 음료와 음식의 판매를 늘리는데 노력해 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예약 주문을 받는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고객 서비스를 개발하고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은 전세계에 2만여개 있으며 그 중 과반인 1만1천500개가 미국에 있다.

게이츠 "거액 유산 안 물려준다"

세 자녀에게 "자신의 길 펼쳐나가라" 가르쳐

(서울 = 연합뉴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부부가 거액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펼쳐나가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18일 밤(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에 참석해 자녀 양육법을 공개했다.

게이츠 부부는 자신의 두 딸과 아들에 대해 유산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펼쳐가도록 격려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재산 보다는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테드 기획자 크리스 앤더슨이 "당신들은 자선재단에 막대한 기부를 했음에도 그들(자녀들) 모두를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게이츠 부부는 "그들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게이츠 부부는 또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그들에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그들이 밖에 나가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게이츠 부부는 이어 자녀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부부가 이끄는 자선재단에 기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서 자신들의 양육법은 투자의 귀재이며 자선가인 워런 버핏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게이츠는 76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세계 최대 부호로 부인과 함께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 에이즈 예방, 농업 진흥, 빈민 지원 등의 사업에 힘쓰고 있다.

게이츠 부부는 또 버핏과 함께 부자들의 기부서약캠페인인 '기빙 플레지'도 주도하고 있다.

2월 주택 판매 부진...한파, 집값상승 탓

(워싱턴 = 연합뉴스) 미국에 최근 몰아닥친 한파·폭설과 집값 상승 등의 여파 등으로 기존주택 판매 실적이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업협회(NAR)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총 46만채로 지난 1월(46만2천채)과 비교해 0.4% 감소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지난달 거래 물량은 대부분 지난 1월 계약이 이뤄진 것이어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불어닥친 한파가 거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판매가 0.2% 줄었고 변동성이 큰 공동주택은 1.8% 감소했다.

집값 상승도 거래 위축에 한몫했다. 지난달 재고주택의 평균 가격은 18만9천 달러로 1개월 전보다 100달러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9.1% 상승한 것이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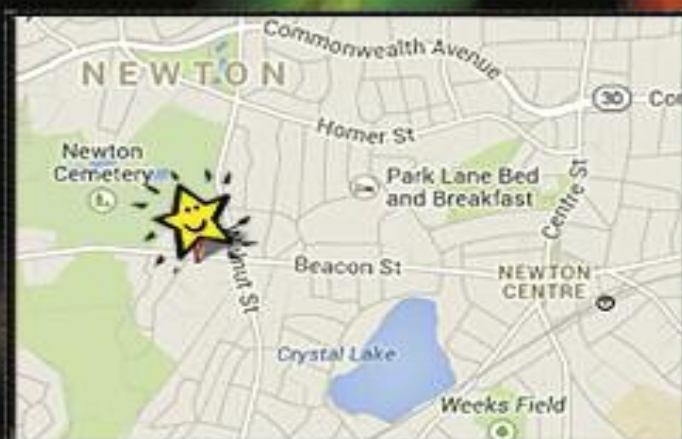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토알갈비
크리코 함께 즐기는 \$6.99 소주!
푸짐 칼칼한 아구찜과 곱창전골!!



Original
ONLY \$6.99



9시 30분 이후 단체 식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4 개인세금보고

인적공제(exemption)-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사례1) 미국 영주권자인 김백두씨의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한편 김백두씨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 요건을 충족해 미국의 세금신고시 세대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백두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둔 납세자는 세금신고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별로 신고하던 세대주로 신고하던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김백두씨와 같이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첫째; 미국의 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것(No gross income for U.S. tax purposes)
- 둘째;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것
- 셋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것

위의 첫째 요건을 보면, '미국의 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미국의 소득만 아니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법상 미국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한국의 근로소득은 미국의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김백두씨는 배우자의 한국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김한국씨의 장녀 김한라양은 미국시민권자로 25세 학생입니다. 김한국씨는 장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exemption)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 1인당 일정액(2013년 : \$3,90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는 ① 본인 ② 배우자 그리고 ③부양가족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 하고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dependent)' 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 와 '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 으로 나뉘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 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김한라양이 Qualifying child인지를 보면,

'Qualifying child' 의 요건에는 자녀의 나이(age)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연도 말에 자녀가 19세 미만(학생인 경우 24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25세인 김한라양은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한라양이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음으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Qualifying relative' 가 되기 위해서는

- ①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하며,
 - ② 세대구성원 (Member of household) 이거나 납세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 (relationship)에 있어야 하며,
 -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3,900이하여야 하며
 - ④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 ⑤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위의 'Qualifying relative' 요건을 보면 'Qualifying child' 요건과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25세인 김한라양도 Qualifying relative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김한라양에 비추어보면, 김한라양은 총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한라양은 비록Qualifying child는 아니지만 Qualifying relative로서 김한국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F-1 비자 소지자인 17세 조카 김태백군(한국국적)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카인 김태백군은 김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될까요?

- 먼저 조카가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봅니다. Qualifying child란 ① 납세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②나이(age), ③납세자와의 동거여부(residency), ④부양 요건(support),

- ⑤결혼한 자녀의 부부합산신고 여부 및
- ⑥ 시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납세자와의 관계 (relationship)란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손자 등) 또는 brother, sister,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조카 등) 등을 말합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에는 납세자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그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범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를 보면 김한국씨와 조카인 김태백군은 '납세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위의 ②나이, ③동거, ④부양 등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김태백군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만약, 김태백군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면 그는 Qualifying child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위에서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 (사례2)에서 검토한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김태백군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때도 거주자 요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여전히 그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OPE

당신도, 경험하세요
피부 탄력의 끝!

슈퍼바이탈 크림 바이오인텐시브

\$90이상 구매 고객님께 OR 바이오인텐시브를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보우안 마스크 발효 클렌징 티슈를 증정합니다

슈퍼바이탈 크림 바이오인텐시브 구매시 슈퍼바이탈 5키트를 증정합니다

SUPER VITAL CREAM BIO INTENSIVE LAUNCHING PROMOTION

NEW TROUBLE SOLUTION TOTAL ACNE CARE IN 4 SIMPLE STEPS
피부진정은 기본 트러블 예방까지 (IOPE TROUBLE CLINIC)

IOPE

new TROUBLE SOLUTION

피부진정엔 기본 트러블 예방까지

Clearing Fluid 100% 100 ml/3.3oz
Soothing Toner 120ml 4.2oz
Control Emulsion 100ml 3.3oz
Moisturizer 40ml 1.4oz

아모레 보스문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March 1~March 31

송영두 박사의
조기유학 물고 답하기

송영두 박사 (보스톤유학원 원장)
보스톤유학원 www.bosec.com
545 Concord Av,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USA
Tel 617-491-0041
9731

한국 사무소: 타워팰리스
전화: 02-579-9731
Email: ysong@bosec.com / www.bosec.com

아이비 리그 가려면 GPA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아이비 리그 가려면 GPA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Weighted GPA가 뭔가요?

답변

Weighted GPA란 우리 말로 하면 성적의 가중 평균치이다. 즉 모든 과목을 난이도에 상관 없이 A 받으면 4.0 주고 B는 3.0 주고 C는 2.0 줘서 과목의 GPA (Grade Point Average 평균 점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AP나 Honors 같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점수를 조금 더 줘서 계산한 GPA를 Weighted GPA라고 한다. 예를 들면 AP는 5점, Honors는 4.5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목이 어려운 경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GPA를 높고 보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려운 과목을 많이 제공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은 명문 사립 특히 보딩 스쿨 들은 대부분 Weighted GPA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미국 교육자들의 교육 철학과 각 학교의 역사와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교육 기관 들은 우리 만큼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명문 학교들은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고 난이도의 단계도 여럿이라 이를 공평하게 가중 평균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프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숫자만으로 선생과 학생의 노력,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이런 이유로 Weighted GPA를 잘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4.0스케일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아주 많다. 예컨대 Phillips Academy, Andover는 6.0만점이고 Phillips Exeter Academy는 11점 만점이고 Groton은 100점 만점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A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가 B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부모에게 '우리 애는 요번에 GPA 3.9 받았는데 거기는 몇 점이에요?' 라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생기는 의문은 Weighted GPA 건 regular GPA 건 숫자를 비교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대학에서 입학 사정에서는 뭘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그리고 Phillips에서 5.0 받는 학생과 Groton에서 90 받는 학생을 어떻게 비교할까?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굳이 예/아니오로 답하자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비교가 쉽지 않다고 봐야 하겠다.

그렇다면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학교 성적을 어떻게,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것 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의 프로파일, 석차, 그리고 과거 입학 실적이다. 우선 학생의 학업 능력은 석차로 알 수 있다. 이를 듣고 많은 사립학교 부모들이 '우리 학교는 석차 발표 안하는데' 라고 말하고 싶으실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밀은 학교 프로파일에 있다. 각 학교는 대학으로 매년 그 학교의 프로파일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어떤 과목들이 제공되며, SAT 평균이 얼마이고 AP는 몇 명이 무슨 과목을 수강했고 점수 분포는 어떤지 같은 것이 나와 있다. Phillips Exeter 같은 명문 학교는 심지어 9학년 부터 다닌 학생과 10, 11 학년 부터 다닌 학생을 구분해서 GPA 분포를 제공한다. 이 분포를 잘 들여다 보면 정확히 15 등인지 16 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학생이 1 등에서 5 등 사이인지 10 등에서 15 등 사이인지는 알 수 있다. 대학에서는 GPA에 의한 석차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 혹은 질을 같이 들여다 본다.

그러면 A 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B 학교에서 받은 성적은 어떻게 비교할까? 일부 주립 대학이나 큰 학교 들은 고등학교에서 받은 GPA를 4.0 시스템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기도 하지만 명

문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환산 된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답은 서로 다른 학교 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거나 비교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자료는 그 고등학교의 과거의 입학 실적이다. 예컨대 하바드에 입학하는 Phillips Academy 학생들을 보자.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지난 30년간 숫자는 점차 줄고 있다. 예컨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9.8명 정도가 하바드에 진학한 반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평균 15.6명으로 줄었다. 특히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9명이 입학하였다.

좀 더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으로 말하면 숫자가 중요하게 아니고 대상 학생의 전체적 그림- 그것이 공부 건, 공부 이외의 것이건 간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holistic approach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종합적 검토 혹은 전체 그림을 보기 정도일 것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답변 내용은 보스톤유학원에 저작권과 판권이 있습니다. 보스톤유학원 허락 없이는 허가없이 전재,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할 것을 금지합니다.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1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영을 찾아주세요!!

헤어 스타일리스트 영입니다.
2014년 시작과 함께 **Watertown Hair salon Sabrina**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무조건 서비스 (1/16-3/31)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컷 남자 20분, 여자 25분, 파마, 코팅, 염색 70분
셋팅 디지털, 캐러틴 130분, 매직 200분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 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주소: 25 church st, watertown MA
다중교동: 52, 57, 59, 70, 70A, 71, 502, 504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미국 대학의 이해: Art Schools (2)

미술 계통 전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계열은 순수 미술(Fine Arts) 전공들이다. 순수 미술 학과는 기초적인 미술 이론부터 회화, 조소, 판화, 설치 미술은 물론, 미술 교육이나 비평, 미술사(Art History)까지 폭 넓은 분야를 두루 다룬다. 선천적인 소질과 독창적인 표현력 등을 가진 학생이 순수 미술 학과에 진학하기 적합하다. 졸업 후에도 작품 활동을 하거나 미술 감정사나 큐레이터, 혹은 미술사 연구가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더 현대적인 미술 분야로는 디자인이 있다. 광고나 그래픽 디자인은 물론 제품 제작이나 가구 등의 산업 디자인, 더 나아가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학, 그리고 패션 디자인까지 모두 디자인 계통에 포함된다. 순수 미술 학과들이 전통적인 회화 기법과 표현에 중점을 둔다면, 디자인 계통 학과들은 세분화된 전공, 그리고 전공별 목적 의식에 따라 시각적, 예술적 기량을 키운다. 예를 들어, 광고 디자인 학과에서는 매체의 특징, 기획, 광고의 역사 등을 배우게 되고 건축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설계부터 조경, 단지 계획, 주거 디자인 등 건축에 관련된 공학적 이론을 배우게 된다.

순수 미술과 디자인 외에도 사진, 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미디어, 보석/악세서리 디자인, 더 나아가서는 예술 산업 계통을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많다. 게다가 미술이나 예술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 맞춰 특수한 전공도 생기는 추세다. 예를 들어, 뉴욕대학교의 Tisch School of the Arts는 흔히 말하는 미술 대학이라기 보다는 연극/영화, 무대 연출, 음향 등 예술 산업에 관련된 학과를 전문으로 가르치지만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같은 대체 미디어나 게임 디자인 및 제작까지 전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다.

아예 미술과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린 학교도 있다. 미국 전체 미술 대학교 중에서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 1위인 Cooper Union에는 미술 대학과 건축 대학, 그리고 공학 대학까지 3개 단과 대학이 함께 존재한다. "최고의 과학 및 기술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라는 설립자 Peter Cooper의 이념에 따라 처음부터 남녀, 인종, 국적에 상관 없이 전액 장학금 제도로 시작한 Cooper Union은 현재 The Cooper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Art로 진화해, 미대는 4년 학부 과정, 건축과 공학은 대학원(석사)과정까지 제

공한다. 대학교 학부 과정으로 미술, 건축, 공학 모두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명문이고, 졸업 후의 높은 취업률까지 더해져 미국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권 유학생들도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CU의 합격률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Cooper Union에서 건축과 미술 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매년 까다로운 주제의 Home Test(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원서 지원 후 3-4주 동안에 학생이 완성해 제출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다른 미술 대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 이수한 수업 중 인문학 계통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시가 힘들다. 참고로 최근 계속된 재정난 때문에 이번 학년, 즉 2014년도 신입생부터 전액이 아닌 반액 장학금 지원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다음 컬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ISAL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비즈니스 영어회화

대학교 진학 준비(학사, 석사, 박사과정)
ISAL 에서 시작하세요.



INTERNATIONAL SCHOOL
OF
ADVANCED LEARNING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34 855-595-5885

www.isalusa.com info@isalusa.com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애쉬빌 스쿨(Asheville School)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애쉬빌은 1900년 오하이오 출신 찰스 미첼(Charles Mitchell)과 뉴튼 앤더슨(Newton Anderson)이 노우스 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애쉬빌에 설립한 남녀 공학 보딩 학교이다. 처음 남학생들의 대학 준비 및 몸과 마음 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남녀공학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양성과 깊이가 더해져 더욱 발전한 학교이다. 학교가 뉴잉글랜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학이 힘들고 명문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학교로 널리 알려져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한국 TV음악 프로그램중 하나인 Superstar K4에 출연하여 일등한 로이킴(Roy Kim)이 이 학교 졸업생이어서 더욱 유명해진 학교이다.

애쉬빌은 학생들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리더십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짜임새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아카데미부분에 힘들어서 하지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특히 휴머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4년동안 문학, 역사, 종교, 미술, 음악, 건축학, 필름등이 포함된 과목을 꾸준히 들어야만 한다. 즉 인문학쪽, 특히 작문과 리딩 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학교이다. 학

교가 블루리지산(Blue Ridge Mountains)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야외활동을 통해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 보딩학교들이 많지 않아 다양한 교류를 할 수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2013-2014년도 애쉬빌은 총280명의 학생들이 64명의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고, 선생님들중 약72%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이다. 학생들과 선생님의 비율은 4대 1로 아주 이상적이고, 한번 평균 13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재학생들은 약 80%가 보딩이고 나머지는 데이 학생들이다.학교에서는 16개과목에서 AP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머니티: 고대사, 세계사, 유럽사, 미국사, 유럽 문학, 미국 문학, 세미나
수학: 대수학(Algebra)1,2, 도형(Geometry), 통계학, Precalculus, 미적분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학: 생물, 화학, 물리, 환경과학, 해부및 생리학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아트: 순수 미술, 응용 음악, 음악 이론, 스

튜디오 아트등의 코스가 제공되고 있다.

애쉬빌의 아카데미 코스특징은 많은 선택보다 핵심적인 과목을 깊이 있게 모든 학생들이 수강 하도록 만들어져있고, 인문학 과목(Humanities)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도전적인 아카데미 코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4년동안 들을수 있도록한 점이다.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마다 다양한 흥미와 깊이 있고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할수 있도록 많은 코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점이다. 이는 학교가 소수정예 교육을 중요시 하다보니 모든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교육 시켜 대학에서 흥미있는 전공을 찾을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특정분야에 깊이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학년때 코스의 깊이가 제한적이어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매년 모든학생들이 적어도 하나이상의 섹스피어 작품을 공부하며, 반학생들 앞에서 모든학생들이 참가하는 섹스피어 암송(Shakespeare Recitation)대회가 있다.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특정 연구 주제를 정하여 논문을 써야하며 이 논문을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패널앞에서 발표한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고 통과해야 졸업할수 있다. 또한 시니어들은 학교체플시간에 전교생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한다. 모든 학생들은 매학년 특정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하며, 가을학기 수업시작전 3일간 야외 캠프에 참여해야만 한다.

(스포츠)

이 학교에는 총 21개의 팀 스포츠 종목이 있다. 크라이스트 학교(Christ School)가 애쉬빌 학교와 노우스 캐롤라이나주 사립학교들중 가장 오래된 운동 라이벌이다. 모든 9,10학년 학생들은 세 시즌중 적어도 한 시즌동안은 팀 스포츠를 해야한다. 실제로 약 75%의 학생들이 학교 팀스포츠를 하고 있다. 시즌별 운동 종목을 살펴보자.

가을: 크로스 컨트리, 필드 하키, 미식 축구, 남자 축구, 여자 테니스, 여자 배구
겨울: 농구, 수영, 레슬링
봄: 야구, 라크로스, 여자 축구, 남자 테니스, 육상등의 운동 종목이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Junior Varsity 또는 Varsity팀에 속해 타학교와 경쟁을 한다.
(다음호에 계속)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 스탠포드에 90% 합격률을 유지하는, 보스톤의 최강 강사진으로 구성된, **선진학원**에서 다음 강의를 오픈합니다.

방학 내용	기간	강좌 내용	강사진
탱스기빙	11/23 ~ 12/ 2/2013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Olivia (Milton, MIT 풀, 다년간 보스톤 및 서울 유명학원 강사유경험자)
겨울방학	12/20/2013 ~ 1/5/2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Richard (Columbia대학원 역사전공졸, 보스톤 및 서울 유명학원 강사유경험자)
봄방학	3/5 ~ 3/23/3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수학경시)	Daniel (MIT 수학과 졸업, 수학박사과정중, 보스톤 지역스타강사)

* 상기 기간은 개별학교의 Break 기간이 다르므로 학생별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영문학, 미국 역사, 세계사 박사 소지자로서 선진학원 다년간 강사 경험자 참여함. 물리, 화학, 컴퓨터, 라틴어 강의도 합니다.

년중 매주 월,수,금(4~6시), 토, 일 (10~12시, 1~3시) :SAT 그룹강의 개설:클래스당 3명 이상시 강의 개설함.

학부모님 학원 예약 방문시 무료 대입및 고입 상담

차별화된 특강

- 강의 기간동안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가이드 및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투어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동안 그룹 강좌 외에 개인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과목 강의 가능함.
- 개인 학생별 상담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기간별 마스터 플랜 작성해줌.
- 미국 현지의 최고 수준의 과목별 강의와 맞춤형 Extra Curriculum 제공

1050 Waltham St. Suite#320 Lexington, MA 02451

781-863-0677 icarus766@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eaconess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 고민하십니까?

엔티비 하나면 충분!
다른 한국어 패키지는 필요없습니다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MBC, KBS1, KBS2, SBS

한국방송을 즐기게 하십시오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이제 엔티비와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617.955.9112/617.650.6656

Beth Israel Deaconess HealthCare®

Min Keun Song, MD, MPH, CMD

송민근 박사는 내과학과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바드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주리 주립 대학, 하바드 의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쳤습니다.

송박사의 외래 클리닉은 **Milton** 과 **Needham**에 위치해 있고 새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BIDHC-Milton 199 Reedsdale Road Brooks 2 Milton, MA 02186	North Hill 865 Central Avenue Suite A301 Needham, MA 02494
---	--

For an appointment, please call:
617-696-7600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에수제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봄이 보인다

봄이 오니, 차분했던 사진에 대한 호기심이 개 나리 꽃 마냥 마음 속에 피어난다. 카메라를 사는 이도 있겠고, 렌즈를 업그레이드 하는 이도 있다. 사진이 장비가 좋다고 꼭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장비 덕에 촬영하는 흥이 난다면 장비 구입도 추천할만 하다. 오늘은 렌즈에 대한 것을 복습해 보자.

필카(필름 카메라)에서는, 85mm 장초점 렌즈가 인물 촬영에 주로 사용된다. 85mm 렌즈는 표준렌즈인 50mm 렌즈보다 약간 망원 효과가 있지만, 본격적인 망원렌즈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장초점 렌즈 또는 준망원 렌즈라고 부른다. 50mm 렌즈도 인물촬영에 많이 사용되지만, 망원 쪽의 렌즈가 더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표준렌즈로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코가 크게 나오고 귀가 작게 나오는 등의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다. 광각렌즈에서는 더 심해져서 코주부가 된다. 망원렌즈는 이런 왜곡이 없지만, 망원효과가 강한 망원렌즈는 인물 촬영이 불편하기에 85mm 정도의 준망원렌즈가 가장 이상적이다. 85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는 얼굴을 클로즈업해도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

물론 85mm보다 더 긴, 105mm 또는 135mm

도 인물 촬영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 그러나 200mm 이상 되는 망원렌즈는 인물을 촬영하기에는 망원 효과가 너무 강하다. 105mm 또는 135mm 로도 인물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은 좀 불편하기에, 역시 85mm가 인물 촬영에 가장 이상적인 초점 거리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전통적인 35mm 필카(필름 카메라)의 경우이다. 디카(디지털 카메라, DSLR)는 필름에 해당하는 촬상소자(CCD 또는 CMOS)는 화학적 필름에 비해 일반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렌즈 초점거리가 많이 달라진다. 필카용 렌즈를 디카에 붙이면, 일반적으로 1.5배 정도(크롬비율에 따라 다르다.)의 망원렌즈에 가까워진다.

필카용의 85mm 렌즈를 디카에 붙이면, 85 곱하기 1.5는 127.5가 되어 127mm의 망원 렌즈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디카에는 50mm 렌즈를 붙여야 인물 사진에 적합한 75mm 정도의 초점거리가 얻어진다.

일반적인 디카에선 50mm F1.4" 또는 50mm F1.8" 등의 렌즈를 붙이면 이상적이다. (1:1 바디는 필카의 렌즈를 그대로 사용가능)

아울러, 굳이 단렌즈 혹은 표준렌즈가 없다면, 디카를 살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번들



Photograph by SoungDae Yang

줌 렌즈도 인물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 번들 줌 렌즈를 표준이나 약간 망원 쪽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충분하다. 줌링을 돌려 가면서 인물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에서 촬영하면 되는 것이다.

한 예로, 니콘 18-55 mm (애기번들) 줌 렌즈의 경우, 18, 24, 35, 45, 55등의 초점거리 눈금이 있는데, 이 초점거리들을 환산해 보면, 55 mm 는 82.5 mm 장초점 렌즈에 해당하고, 35mm 는 52.5mm 표준렌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번들렌즈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초점거리를 35 mm에 놓고 촬영하고,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에는 55로 놓고 촬영하면 좋다.

참고로, 표준렌즈나 광각렌즈 같은 짧은 초점

거리의 렌즈로 인물을 클로즈업하면, 카메라와 인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모델이 긴장을 할 수도 있다. 적당한 준망원렌즈로 촬영하면, 촬영자나 모델이나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사진이 많이 나온다.

하나의 장면으로 충분히 호소력 있는 사진을 담아내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론 연작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꾸며 보는 것도 사진을 담는 작업을 즐거운 일로 만들어 준다. 따뜻한 봄이 오니, 얼어버린 사진에 대한 열정에도 불을 지펴보자. 들뜬에 부는 바람이, 피어나는 꽃들이 봄을 이야기 하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에서 봄이 보인다.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39 회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문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운명이라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싶지 않았다. 운명에 모든 걸 건다는 것은 삶에 자신 없는 이들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빙자한 못난 이람표 같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의 길목마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늘 세 아이에게도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 엄마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귀는 있어 듣되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생각일 뿐 지금에 와가만히 생각하면 운명은 이미 내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프리즘을 통해 와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아니 젊음에 대해 아직은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처럼 최면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여자에게서 하나

둘 늘어나는 흰 머리카락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인지하면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늙지 않을 거라고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은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뜻밖의 시간과 공간에 부딪혀 깨져야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생각이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사로잡혀 착각을 하는 것뿐이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음인 까닭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다저렇다 말하기 좋아한다. 그것은 너무도 작고 초라한 자신의 삶의 일부뿐일 뿐인데 코끼리 허벅지를 만지고 다 보았다고 말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를까. 그저 삶은 말이 아니라 머리로 살든 몸으로 살든 가슴으로 살든 사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경험한 만큼이 자신의 삶이고 인생일 뿐이다.

내 어머니가 그랬고 내 할머니가 그랬을 그 인생은 뭐 그리 거창할 것도 그렇다고 또 초라할 것도 없다. 다만, 내게 주어진 삶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한 번쯤은 내게 허락된 운명과 대면할 줄 아는 한 번뿐인 삶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멋진 삶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

의 눈치나 처해진 환경을 미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는 존재 가치로 이미 충분한 누림의 삶이면 좋겠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을 충분히 사는 삶 그래서 지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묶여 오늘을 잃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귀하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것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 싫고 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때만이 훗날 인생의 황혼길을 걸을 때 아쉬움이 나 후회가 적지 않을까 싶다.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생명의 존귀함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든 작든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으며 쉬이 얻은들 그 기쁨이나 행복이 오래갈까 말이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까닭이다.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만이 자유로운 나를 만날 것이다. 제 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듯 난

잘살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은 생각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다. 이너른 세상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생각하면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절로 오른다. 저 바닷가의 백사장에 반짝이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저 높은 산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주 작은 미물들에게 까지도 말이다.

하늘이 내게 주신 낙천지명(樂天知命)의 삶의 노래를 부를 때만이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유한한 피조물인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해안이 열리는 까닭이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지 않은가. 이처럼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안 까닭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티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구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njoy & TV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엔티비

\$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무약정 가능)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엔티비 추가 장비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컨텐츠. 이제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617.955.9112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650.6656

*법정 건전소로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강제력을 피하려는 미국 행위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화옥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눈발에서 바퀴는 헛돌고 미끄러져 빠져나올수 없었다. 지난 가을 낡은 타이어를 갈았어야 했다. 한 일년 더 버텨볼 요량이 후회로 돌아 왔다.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스스로 다스릴 재간이 없었다. 지난달 강습한 스노스톰 때문이다. 눈발은 펜스를 맞춘 장쾌한 삼루타였다. 루뽕상의 주자를 모두 흡으로 불러들였다. 나도 내 아내도 아이도 모두 흡으로 불러 들어왔다. 폭설에 우리는 집안에 있었다. 그래도 봄은 왔다. 꽃샘추위마저도 삼월이 데려간다. 춘분이 내일모레다. 본 적이 없는 데도 본 듯한 풍경이 있다. 처음 인사 나는

사람인데, 전에 만났었지 싶은 인상도 있다. 읽은 적이 없는 데도, 읽었던 것 같은 착각처럼. 아니면 읽기는 읽었다만, 기억치 못한 글 줄이라 해도 될게다. 다시 읽을 적에 '예전엔 미처 몰랐' 고 새삼 다른 감동이 온다. 소월의 시詩가 내게는 그렇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주 오래전이다. 소월의 시가 유난한 적이 있다. 정결치 않은 목로주점 낙서판엔 취한 낙서로 소월의 시가 요란했던 거다. '산산이 부서진 이듬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듬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듬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듬이여! (조흔, 김소월 중에서). 갈겨 쓴 꼬부라진 글씨는, 술에 취했음인즉. 고시에 실패했거나, 실연失戀했거나. 아니면, 괜히 흘러가는 청춘을 못내 아쉬워하는 젊은이들 소리였다.

내 군대동기도 한동안 첫구절을 입에 달고 다녔다. 고무신 꺼꾸로 신겠다는 편지를 받은 다음이다. 현대, 문제는 위로 할 수 없다는 거였다. 앞으로 더 좋은 여자에 만날 수 있을 거다. 빨리 잊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도 목젖까지만 올라왔을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아픈 사람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니 말이다.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닐진대, 듣는 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는게 상책이었던 거다. 그 마음을 누가 알리오. 아픔을 누가 가늠하리오. 그 슬픔을 누가 위로 하리오.

몇일 지나 그가 말했다. '나 말뚝 박을래. 앞으로 박하사라 불러라.' 장기복무 지원한다는 말이고, 비장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친구 끝내 하사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그저 무탈하게 병장달고 제대했다. 그도 '사노라면 잊힐 날' 있음 직 했던 거다. 참, 내가 그 친구 연애편지를 몇번 대필해줬다. 행여 내 대필연애편지가 그의 실연에 영향이나 없었을까 은근히 짚었다.

영변 약산에 진달래 피듯, 내 집 뒷마당에도 철쭉이 필 거다. 진달래만 하라만, 철쭉도 보기에는 그만하다. 철쭉 피는 봄날을 '기두린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다른 모습을 보일까?

봄을 못내 기다리는 못 잊을 당신. 상춘賞春!

'산산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이사야서 30:14)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들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용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용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리그 최고의 코너백 대럴 레비스의 합류로 패트리엇츠의 수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츠에 오면 승리가 보인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NFL 프리 에이전트 시장이 열린지 불과 1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많은 선수들이 소속 팀을 옮기고, 각 팀들은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선수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 역시 프리 에이전트로 풀린 선수들을 영입하고 나섰다.

패트리엇츠가 지난 주에 영입한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리그 최

고 코너백으로 불리는 대럴 레비스와 와이드 리시버 브랜든 라펠이다. 두 선수 모두 패트리엇츠에 필요한 핵심적인 선수들이다.

패트리엇츠 입장에서는 패스 수비와 공격력 강화를 피하기 위해 레비스와 라펠을 영입했다. 프리 에이전트 선수 입장에서 자신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팀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돈 때문에 패트리엇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럴 레비스: 승리를 원한다

레비스는 자신이 패트리엇츠에 온 가장 큰 동기가 승리라고 말한다. 레비스는 지난 17일 신체검사와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해 패트리엇츠의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레비스는 인터뷰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승리뿐이다”라며 “나는 이기고 싶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패트리엇츠보다 좋은 팀이 있을까? 지난 기록을 보면 패트리엇츠는 매년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다. 탐 브래디와 빌 벨리치 감독을 중심으로 한 훌륭한 팀이다. 난 풋볼을 하기 위해, 그

리고 이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라고 말했다.

레비스는 아킥 탭립이 떠난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다. 탭립은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패트리엇츠와 AFC 라이벌 관계에 있는 덴버 브롱코스로 계약을 맺었다. 패트리엇츠는 지난 시즌 브롱코스에게 AFC 챔피언십에서 패하며 수퍼볼 진출이 좌절되었다.

레비스의 전 소속팀이었던 뉴캐너스는 작년 여름에 패트리엇츠와 여름 훈련을 같이 했다. 당시에 레비스는 패

트리엇츠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레비스는 당시에 대해 “나는 패트리엇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벨리치 감독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볼 수 있었다”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팀이다”라고 말했다.

브랜든 라펠: 탐 브래디와 뛰고 싶다

패트리엇츠에 새로 합류한 와이드 리시버 라펠 역시 승리에 대한 욕심을 밝혔다. 그러나 라펠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설명했다. 바로 쿼터백 탐 브래디의 존재다.

라펠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쿼터백과 함께 경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언젠가 캠 뉴튼(라펠의 전 소속 팀 팬더스의 쿼터백)도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캐롤라이나에 있는 것보다 패트리엇츠에 있는 것이 더 많은 패스를 받고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팬더스와 패트리엇츠는 지난 시즌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비록 경기에서는 패트리엇츠가 패배했지만 당시의 경험이 라펠에게는 인상적이었다며 “패트리엇츠 리시버들은 그저 손을 들기만 하면 된다. 어떤 경로로 뛰든지, 어떤 수비가 붙든지 그저 손을 들면 된다. 그러면 언제나 풋볼은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 인조와 병자호란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까지 불과 두 달간에 일어난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외침外侵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치욕적인 전쟁으로 기록 된다. 정묘호란 후 후금은 조선에 대하여 식량지원과 명나라를 치기 위한 병선 등 많은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1632년(인조10년)에는 ‘형제지맹’을 ‘군신지의’로 바꾸기로 요구하였고 신하의 나라가 되라는 굴욕적인 강요에 척화론이 대두 되면서 후금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갔다. 반면 내몽골을 평정한 후금의 흥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개명하고 황제의 존호를 요구하면서 사신을 조선으로 보냈다.41) 그러나 인조는 척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사신들을 접견하지도 않았고 국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8도에 선전교서를 내려 전쟁을 준비하였다. 청태종 흥타이지는 1636년(인조14년) 12월2일 10만의 병사들을 직접 거느리고 심양瀋陽을 출발하여 9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출병 10여일 만에 도성을 위협하였고, 그제야 조정에서는 허겁지겁 대비를 하였다. 이 대비라는 것이 고작 왕과 왕자들이 조정의 중신들과 함께 강화도와 남한산성

으로 피신하는 것이었다. 물론 주화론자였던 최명길을 적진에 보내어 협상을 하면서 피신할 시간을 만들기도 해봤지만 왕자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에는 벌써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 발길을 다시 남한산성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8도에 거병 격문을 돌렸지만 중과부적이었다. 16일에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이듬해 정월에는 청태종이 인조가 직접 나와서 항복하라고 요구하였다. 성안에서는 김상헌을 대표로 하는 척화론자들과 최명길을 대표로 하는 주화론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안에 비축되어 있던 50여일 분의 식량으로는 바다가 점점 가까와 지고 혹독한 추위에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1만2천의 군사로서는 청의 10만 대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화론의 주장이 채택되어 입성한지 47일 만인 1월30일 인조는 왕세자와 함께 삼전도(현재의 송파)에 설치한 수항단에서 항복하였다.42) 이 날의 항복의식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으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때 까지 청의 간섭을 받아왔다.43) 19세

기에 들어 와서 서양의 함포에 청이 개항을 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었지만 처음에는 군신의 관계로 성곽의 증축이나 수리도 허락 없이 할 수 없었고, 소현세자와 왕자(봉림대군, 후일 효종) 그리고 대신들의 자녀도 인질로 잡혀갔다. 특히 척화파의 강경론자였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은 잡혀가서 참형을 당했으며 김상헌도 나중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관계로 변하게 되니 조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하였다. 야인野人들이라고 멸시하던 여진족과 만주족에 패한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의분에만 차서 복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 특히 심양에 인질로 잡혀가서 긴 세월을 보낸 봉림대군이 임금(효종)이 되었을 때 송시열 등과 함께 복벌을 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과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병자호란은 약2개월간의 짧은 전쟁이었고 국토가 폐허되거나 인명의 피해가 별로 없었지만(수 십만의 인질이 청나라로 잡혀 갔다가 돌아왔다) 조선의 임금이 부터 하

층민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41) 1636년(인조14년) 음력2월 용골대, 마태부 등의 사신이 왔다. 그러나 최명길같은 주화론자도 있었지만 척화론에 밀려 사신도 접견하지 않고, 8도에 선전교서를 내렸다. 한편 청은 음력4월 국호를 청으로 개명하고 조선 원정군을 조직하여 침략을 준비하였다.

42)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무릎꿇고 절을 한다고 하여 ‘삼배구고두’라고도 한다.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다. 구령에 따라 땅 바닥에 머리를 대고 세 번 절하고 술 세 잔을 받을 때 마다 한 잔에 세 번씩 절을 하다. 인조는 청나라의 막강한 화력과 10만의 군사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 있다가 추운 겨울날 삼전도로 나가 청태종 흥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로 항복을 하고 나서 세자와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궁궐로 들어 왔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正史도 그날의 치욕적인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지만, 1938년에 출판된 월탄 박종화의 ‘대춘부待春賦’나 현대인의 눈으로 쓴 김훈의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참혹성과 그 날의 비애를 잘 묘사하고 있다.(의병활동을 낭만적으로 묘사한 면도 있지만...)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라를 지켜 냈기에 우리는 만주족이나 여진족에 동화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으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견지는 음미해 볼만한 생각의 각도가 아닌가...

43) 청일전쟁: 1894년 7월25일(선전포고는 8월1일) 부터 1895년4월17일까지의 청나라와 일본간의 한반도에서의 권리 점위를 하기 위한 전쟁으로 만주와 한반도, 대만 그리고 황해에서 치러진 전쟁이다. 물론 일본은 ‘일청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갑오년에 일어난 전쟁이기에 ‘중일갑오전쟁’이라고 부르며, 세계사에는 ‘제1차 중일전쟁(First Sino-Japanese War)’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승리로 1895년4월17일 하관조약下關條約,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의 조선 간섭을 물리치고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 지배력을 빼앗다. - 조약 1조에 ‘조선이 독립 자주 국가임을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있지만 일본의 야욕은 조선의 영원한 지배였다.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 To be the best of the best...”



ART SKILLS

- World Taekwondo Federation
-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 Korea Hapkido Association

LOCATIONS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TUSA Cup 2013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흥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칼럼〉

통일로 가는길 ³

윤상래 (yoonsville@aol.com)
전서울대동창회장, 윤상래 동물병원 원장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아시아 세기’의 주축으로 새 태평양 시대를 열게 되고 동, 북아시아의 경제 중추국이 될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영구한 평화의 산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 한반도의 통일이 없는한 일본과 중국의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만큼 지정학적인 세력의 원동력이

한반도에 잠재하여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정주부근에서 Rare Earth Metal의 막대한 매장량이 SRE MINERALS (UK)의 VENTURE PACIFIC CENTURY에 의하여 발견된 것을 DR LOUIS SCHURMANN(Leading Scientist: Australi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이 발표하였다(2014. 2. 14.).

이는 세계 총 매장량의 2/3 정도의 대 규모로서 6 trillion dollar 정도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산악 지대는 석탄, 금, 철,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 200여종의 광물질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석탄만 하더라도 약 9.7 trillion dollar가 된다고 한다. 불행히도 전력부족, 장비 부족, 운송시설 부족, 처리장 부족 등으로 개발을 못하여 오고 있는데다가, 고립된 경제와 제한된 무역(중국 상대 정도)으로 현재 북한의 광산 산업은 오히려 1980년대보다 30% 이하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BANK OF KOREA는 보도 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지하 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중장비가 동원되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 날까는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한반도는 오랜 동안 역사의 온갖 수난과 참혹한 고통을

당했으나 한반도의 통일이 오는 날 우리 한민족은 우리의 땅을 복 받은 나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만이 하는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북한의 대다수 동포가 참여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작년 6월 22일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의 현시점에서, 온 국민의 통일의지를 굳히기 위한 남, 북한 국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KBS의 설문 조사에서, ‘25% 남한 국민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23%는 통일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 하였고, 45%는 비용이 안들면 통일을 하여도 좋다’라 하였다 들었다. 특히나 가슴 아픈 일은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은 35% 정도가 ‘통일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GOLDMAN SACHS 연구를 언급한 것처럼, ‘통일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 처럼 “우리 민족의 대박”인데 오히려 가장 혜택을 받을 세대가 더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국가적인 사업과 계획은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은 ‘통일 의지’의 뜻으로 뭉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위하여 현재를 극복하고 피에 짓밟혔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 대강국이 될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현재 50만명의 재중 우리 동포와, 폭정과 아사를 탈출한 25,000 명의 북한 동포가 남한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우선 이들과 함께 ‘통일로 가는 길’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들과 함께 ‘통일 의지’로 뭉쳐야만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그들을 통하여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전달 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진실되면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물론 120만명의 북한 군대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한반도 통일! 이는 진정 우리 민족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우리의 숙명이며, 세계의 지도 민족이 될수 있는 기회임을 한시도 잊지 말자!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JuJu Nails&Spa

지역: 웨슬리(Wellesley, 고급 동네, T Green-line D-line, Woodland Station 라이드 가능)
자격조건: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가능한 젊고 참신한 남, 녀
기숙사 무료 제공
근무형태: 풀 타임 및 파트타임 (주 7일 오픈)
주중, 주말 및 원하시는 요일 하루도 가능함
급여: 주급제 (탑; 매상의 20% 보정제)
출리데이 페이 및 보너스 지급
지원방법: 전화통화 후 내방

(347)892-0007
(774)208-3369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벌링턴지역 테일러 SHOP에서
테일러 기술자 구함 (초보자도 가능)
T. 631-525-7348

드라이클리닝 셔츠 출세일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T. 978-766-6831

일류요리사와 웨이츄레스,
웨이터 구합니다.
T. 617-319-2833

We Buy Car

We buy used car for top money enen though they have high mil- iages and problems. Please call Sam at 508-725-8888. Speak English.

T: 617-777-7695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기술자,중간 기술자,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청기와 in Medford, (풀타임, 파트타임)
T. 781-424-2872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하버드 대학 근처 세탁소
카운터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T. 617-820-9301(C), 617-576-6840(W)

세탁소 카운터 보실 분
테일러링 하실분 (니덤)
T. 781-854-219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드랍오프 스토어
말보로, 노스보로 지역
T. 860-655-7295

세탁소+드랍오프 스토어 매매
코네티컷 하트포트 지역
주인 은퇴 관계로 매매
T. 860-655-7295

N 드랍 앤 테일러 샵 매매
처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적합하고 부담없는 장소
모든 시설 브랜 뉴
풍부한 파킹랏, 저렴한 렌트
T. 878-761-0897

N [구 인]
샌안토니오 텍사스 초가집 가라오케 빠에서 같이 일하실 착하신 호스테스 여성분들 구합니다
숙식 제공되고, 라이드도 됩니다, 나이 나 신분 제한 없습니다
편하게 친구처럼 일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T. 210-803-5194

N [구 인]
미네소타 주방장 및 헬퍼 구함
-고급 한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주방장 및 헬퍼,용모 단정한 여자 바텐더&웨이츄레스 구함
-숙식제공 가능.
-미네소타 지역,(다운타운)
-Mr. Moon 에게 메시지 남겨 주세요.
T. 621-221-8383

N [매 매]
애틀란타,조지아 지역(좋은장소,좋은비지니스,좋은가격)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입니다.
주인 은퇴관계로 식품점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그로서리를 인수하실 경우 1개월 동안 경영하는 모든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70-933-8808, 770-933-0848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자식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미국 어머니들이 치킨 수프를 끓여주시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설령탕 (Beef Soup)을 만들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설령탕 갈비탕 육개장 도가니탕
수육 족발 보쌈
삼겹살구이 돼지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남새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백산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턴 아름다운 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9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 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던트(휴영욱)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닝클럽	617-331-1011
던요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피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8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길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각(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혜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치료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상충학치치과플랜트	781-89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세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3월 10일 ~ 3월 16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썸	소유
02	Come Back Home	2NE1
03	보름달	선미
04	너 아님 안돼	2NE1
05	Mr.Mr.	소녀시대
06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07	보고 싶어 운다	린
08	Can't Stop	씨엔블루
09	Something	걸스데이
10	안녕	허각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8.0%



1위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28.0%



3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6.6%

4	KBS1	KBS9시뉴스	19.1%
5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8.0%
6	KBS1	대하드라마(정도전)	16.5%
7	SBS	특별기획(세번결혼하는여자)	16.3%
8	KBS2	개그콘서트	15.6%
8	MBC	MBC아침드라마(내손을잡아)	15.6%
9	MBC	주말특별기획(황금무지개)	14.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5		9	4		3		
		1	7			4	2	
						7		9
		6					9	
4	7		1	2	3		6	8
	2					1		
3		5						
	6	4			8	9		
	1		2	9		5		

3월 23일 - 3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p> <p>● 운수: 좋지 않은 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로 시비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화가 많습니다. 문제가 풀릴 듯 말 듯 하니 마음이 더 초조하고 답답하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성문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소띠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p> <p>● 운수: 자신도 모르게 다 귀찮고 쉬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주입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 금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 큰 문제들을 무사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애정: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주입니다. 뉘든지 천천히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범띠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주</p> <p>● 운수: 멀리 길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때입니다. 명예 적인 면에서도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받아야 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주입니다. ● 애정: 미혼자는 자신의 상태를 좋은 인연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멋진 사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6, 21일 길일. 17일 주의.</p>
<p>토끼띠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p> <p>● 운수: 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고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 처리를 해 나간다면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 애정: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정에 대한 결핍을 실감하게 되는군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용띠 가라앉았던 상태에서 벗어나</p> <p>● 운수: 약간 가라앉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직장일이나 사업 관계 등이 활발해져서 바쁜 날이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 운은 비교적 좋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는 위험하지만 착실하게 일해서 얻게 되는 수입은 기대가 됩니다. ● 애정: 서로 합의하에 문제를 풀어나가면 뒤에 가서도 무리가 따르지 않고 더 나은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27일 길일. 28, 29일 주의.</p>	<p>뱀띠 탈바꿈하는</p> <p>● 운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탈바꿈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 금전: 무모한 시도나 모험은 피하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람에게 있어서 신중하도록 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진실한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4, 27일 길일. 28, 29일 주의.</p>
<p>말띠 주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p> <p>● 운수: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소 힘이 드니 주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금전: 쓸데없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낭패에 빠질 수 있는 주입니다. 자중하고 있어야 유리할 것입니다. ● 애정: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군요. 서로가 변하지 않는 한 가정의 불협화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양띠 유리한 쪽으로</p> <p>● 운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그 빛을 비로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금전: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나아지고 믿음감이 따라주니 계약이나 거래가 잘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상태는 이제 지나가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9일 길일. 23, 28일 주의.</p>	<p>원숭이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p> <p>● 운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앞으로의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제시해오는 조건이 좋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금전: 자동차나 집 관계의 일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제는 체념만이 남았군요. 서로를 너무도 모르고 선택한 길이기엔 현실에 대한 실망과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8일 길일. 23, 29일 주의.</p>
<p>닭띠 정신적인 성숙이</p> <p>● 운수: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 처리 과정에서 자신으로 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금전: 전보다 소득은 다소 미약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위의 조언을 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지금 잠시 저주는 것이 길게 보면 이기는 것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셈 치고 이면에는 양보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8일 주의.</p>	<p>개띠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p> <p>● 운수: 성취를 통해서 안정을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행동에 적극성을 만들어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 금전: 말이 오가던 매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으나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미처 마음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6일 길일. 23, 25일 주의.</p>	<p>돼지띠 결혼의 계기가 주어지는 주</p> <p>● 운수: 지금까지 쌓아둔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승진 등의 행운이 따르며 현재 추진 중의 일도 성사되게 됩니다. ● 금전: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호운이 따르겠고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주어지니 현명한 판단 하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꽃보다할배 여행업계 영향력 주목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누나)'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시즌 1의 유럽과 대만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여행객을 한겨울을 비수기에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 시키며 여행 수요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꽃보다 할배' 시즌2의 경우, 여행장소인 스페인이 발표된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방송 전부터 해당 여행지에 대한 관심과 예약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19일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방송이 나가기도 전인 1~2월의 스페인 여행 예약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70%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 '꽃할배' 스페인 편이 방송된 지난 7일 이후에는 여행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행 항공권과 여행상품에 대한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꽃보다 할배'의 높은 인기로 스페인 일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 관련 상담문의가 평소보다 30%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은 추세는 5~6월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장거리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s.yang@bostonkorea.com

박세영, SBS 주말극으로 인방극장 찾아

성장 PD가 만난 작품으로 혼자서 깨끗하게 세 딸을 키워낸 어머니와 딸들의 이야기가 담긴 홈드라마.

박세영이 맡은 정다정은 극중 이름처럼 정이 많은 둘째 딸로 주변을 항상 밝고 유쾌하게 만드는 무한 긍정의 행동과 캐릭터다. 박세영 측은 "고양이 장례식' '패션왕' 등 영화에 이어 다시 드라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됐다. 극중 정이 많고 밝고 긍정적인 다정의 모습이 실제 박세영과 비슷한 점이 많아 더욱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적도의 남자' '신의' '학교 2013' '지성이면 감천'까지 쉴 틈 없는 활약으로 2012 SBS 뉴스타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KBS '뮤직뱅크' MC로 활약하는 등 일약 신데렐라로 떠오른 박세영은 영화 '고양이 장례식' '패션왕'에 잇달아 출연하며 충무로에서도 주목 받는 대세로 떠올랐다.

s.yang@bostonkorea.com

이영애, '대장금2' 통해 드라마 복귀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배우 이영애가 MBC 드라마 '대장금' 후속편 '대장금2'를 통해 10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한다고 알려졌다.

20일 이영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애는 최근 '대장금'을 집필했던 김영현 작가를 직접 만나 '대장금2'의 시나리오를 전달받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관계자는 또 "이영애가 한 달 전쯤 시놉시스를 받아 검토한 끝에 '대장금2'에서 자신이 맡게 될 역할에 상당히 흡족해했다"며 '대장금2'에 대한 이영애의 반응을 설명했다.

'대장금'에서는 한 상궁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장금 역을 맡았던 이영애는 '대장금2'에서 스승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장금2'는 올해 10월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배우 박세영이 SBS 새 주말드라마 '기분 좋은 날'로 인방극장을 찾는다.

박세영 소속사 S.A.L.T. 엔터테인먼트는 20일 오후 박세영이 SBS 새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의 여주인공 정다정 역으로 출연이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기분 좋은 날'은 '보고 싶다' '내 마음이 들리니'의 문희정 작가와 '미남이시네요' '드라마의 제왕' 등을 연출한 흥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웨딩 비디오 예약 접수중

영상앨범
제작 서비스

50% Sale

추억은 영화다

정지된 사진도 음악과 만나면 멋진 영상앨범이 됩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성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 오래된 사진도 복원해 드립니다

영상촬영 / 편집전문 윈도우 동영상 / 유튜브 / 인터넷동영상
* 나비스 617.756.5744 ozic@hotmail.com

OT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Con Grou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대부분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의 매출실적 / 1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9,900
Canton, MA
2 Beds, 2.5 Baths, 2275 sf.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공간
햇볕 잘 드는 밝고 아늑한 집
이현주 401-935-3397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Condominium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32 sf.
수영장 있는 넓고 아름다운 집
이현주 401-935-339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Low condo fee
Jason Jeon 617-642-5670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콘도 Condominium 콘도 - 타운 하우스



\$789,000
Boston, MA
2 Beds, 2 Baths
Luxury elevator condo
Sue Rong Tsai 617-792-8842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617-797-3562



\$149,900
Westminster, MA
3 Beds, 2 Baths,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 하우스
Kwang O. Kim 617-792-8615



\$215,000
2 Beds, 1.5 Baths, 1152 sf.
Chelmsford, MA
업데이트된 roof, water tank
나원태 617-642-3156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리커스토어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차이나타운 식당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년 경력 / 100% 한국인 에이전트 /
한국인 투자자 / 20년 경력 / 한국인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황수진
617-538-697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주택



\$589,000
Weymouth, MA
Full plant dry cleaner +
2 Residential units
Won Ra 617-642-3156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울스톤 식당

건물까지 가능
플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울스톤 역 앞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즈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P 준비하기 (2) 미국이라는 정체성: 논쟁과 전쟁, 그리고 논쟁: 1763~1801 <2>

미국이 독립된 개체로서 걸음마를 떤 '유아기'에 해당하는 1780년대에서부터 시작하여 1810년 대까지에 이르는 약 30여 년간, 다소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가령 제 2의 독립 전쟁이라고 불리는 1812년 전쟁. 건국 당시 "강력한 중앙 정부"를 지지한다하여 이름 붙은 일명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이, 전쟁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커밍아웃했다. 혹은 이른바 "아론 버(Aaron Burr)의 반란",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의 득표를 했으나 부통령이 되었던, 명문가 출신 천재 정치인 버에게 얼떨결에 살인자 그리고 반란을 획책했던 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그 뿐이 아니다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3대 토마스 제퍼슨의 취임식 직전에 서둘러 아담스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연방주의당) 인사들을 법원에 심느라 '한 밤중에' 소동을 피웠다. 결국 4대 대통령이 임명됐(다고 주장하)지만 임명장도 받지 못한 관사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임명은 다음 행정부에서 무효화된다. 그 중 1인인 말버리 Marbury는 이에 반발하여,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민주공화당 인사 제임스 매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말버리와 같은 연방주의자 출신의 존 마셜(John Marshall) 대법원장에 의해 소송에 패한다. 세기의 판결 중 하나인 Marbury 대 Madison 판결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말버리와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속하는 민주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이 재판 결과를 듣고 대노했다.

다른 예도 있다. 미국의 수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뉴욕.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도로 낙점된 곳은 워싱턴 DC였다. 제퍼슨, 매디슨, 그리고 해밀튼 3인의 만찬을 통해 "협상"으로 결정된 일이다. 뉴욕출신 재무장관 해밀튼은 재정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버지니아출신 국무장관 제퍼슨과 매디슨이 주장했

던 워싱턴 DC 안을 받아들이는 Log-Rolling 협상을 했다.

인듯보면 이게 뭘까 싶은 이 사건들 '배후'는 사실 신생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던 격동적 상황과 각종 논쟁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공화파와 연방파간의 혹은 민주공화당과 연방당간의 내적 대립이라든가, 새로운 정부는 어떤 이념에 기반해야하는가, 연방 정부와 각 주의 관계는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한 지역별로, 지지 기반별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들이 충돌하거나 그 충돌하는 입장이 조율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예측되지 않았던 각종 '사건'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셉 엘리스 Joseph J. Ellis의 Founding Brothers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건국의 '아들들'의 메타포를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초창기 미국의 복잡 다단한 야기를 혁명의 세대 Revolutionary Generation이라는 부제로서 다가선다. 여유 시간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어쨌거나 건국기, 혹은 초창기 미국을 공부하는 핵심은 갈등과 논쟁이다. 가령, 그들은 어떤 주제로 논쟁하고, 왜 논쟁했는가, 그 귀결은 무엇이었는가. 제헌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은 왜 소집되었고,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주요 쟁점은 왜 발생했으며, 논쟁을 통해 얻어진 정치적 협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 시기는 정치철학적으로 매우 생산적인 시기가 될 수 밖에 없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핵심이다. 다음의 기출 예제이 주제들로 아웃라인을 그려볼것.

•The debate over the Alien and Sedition Acts of 1798 revealed bitter controversies on a number of issues. Discuss the issues involved and explain why these controversies devel-

oped. (1977, DBQ)

•The Bill of Rights did not come from a desire to protect the liberties won in the American Revolution, but rather from a fear of the powers of the new federal government. Assess the validity of the statement. (1991, FRQ)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 shaping American politics in the 1790's. (1994, FRQ)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American Revolution represented a radical alteration in American political ideas and institutions. Confine your answer to the period 1775 to 1800. (1997, FRQ)

•Analyze the contributions of TWO of the following (John Adams / Thomas Jefferson / George Washington) in helping establish a stable government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2002, FRQ)

•Although the power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creased during the early republic, this development often faced serious opposition. Compare the motives and effectiveness of those opposed to the growing power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TWO of the following [Whiskey Rebellion, 1794/ Virginia/Kentucky Resolutions, 1798-1799/ Hartford Convention, 1814-1815/ Nullification Crisis, 1832-1833] (2003B, FRQ)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평양순대를 맛보십시오

"수익금은 탈북동포 선교 및 후원에 사용됩니다"

평양순대

장소: 롯데종합식품, 297 Mass Ave., Cambridge, MA 02139, (전화) 617-661-1194
일자: 3월 21일 금요일 ~ 23일 일요일, 3월 27일 금요일 ~ 29일 일요일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l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단순함: 스윙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가지만 생각하라

프를 처음 시작하여 아직 여러가지의 것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골프에 대하여 알고 어느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될수록 생각의 가짓수가 많아지게 된다. 아는만큼 생각 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많이 아는 것들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윙을 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실험해 봐야 한다. 연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만 실제 라운딩에서 스윙을 단순화 할수 있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인지 알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할수 있다. 백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머리가 흔들리는지, 눈동자가 돌아간단든지, 손목을 너무 일찍 꺾는단든지, 오른쪽 팔꿈치를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다든지, 다운 스윙때 중심이 아직 오른 발쪽에 남아 있다든지 등등의 여러가지 고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스윙에 영향을 주는 한가지 만을 골라서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직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봄기운의 파스함은 느낄 수가 있다.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골프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 스물 네번째나 맞이하는 봄인데도 필자에게 있어서 봄을 맞이하는 기분은 마치 연애시절 연인을 만나러 나가는 기분과 같다. 이번 시즌에는 정말 잘 쳐봐야지 하는 마음은 어느 골퍼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중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 중에 골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빼놓을 수 없다.

머리속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스윙도 복잡해진다. 복잡해진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것에 반대다. 단순하면 쉽고 복잡하면 어려워진다. 스윙의 준비 단계인 준비자세에서 부터 백스윙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몇초 되지 않는 시간에 수백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골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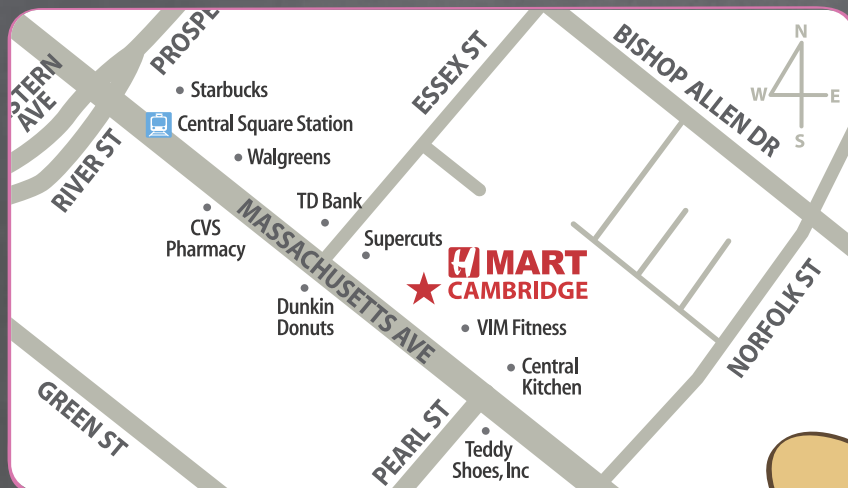
HMART CAMBRIDGE COMING SOON

Always expanding and reinventing for your ever evolving palate!

America's NO. 1 Asian-American supermarket is coming to Cambridge. Experience one-stop shopping at its best with the freshest groceries, superior home goods, friendly service, Asian-inspired food court.

미국 내 아시안마트 NO.1 H마트가 캠브리지에 곧 오픈합니다.

1년 365일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들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들, 최고의 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고품격 원스탑 쇼핑공간 H마트 캠브리지점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ind us on: **facebook**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Also visit our site www.hmart.com

HMART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Red Line @ Central Square Station)
customer_care@hmart.com

From East (Downtown Boston) : Take Beacon Street west until you come onto Massachusetts Avenue. Turn right onto Massachusetts Avenue, drive about 1.2 miles and Hmart Cambridge will be on the left. (581 Mass Ave., Cambridge, MA)

From North (Somerville Area) : Take Prospect Street south until you come onto Bishop Allen Drive. Turn left onto Bishop Allen Drive, Turn right onto Norfolk Street. Turn right onto Mass Avenue, Hmart Cambridge will be on the left.

Public Transportation (Red Line) : Take the (T) Red Line Subway to Central Square Station (#70069) Hmart Cambridge is on 581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Walking distance from the Central Square Station is about 1 minute.

H MAR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집착, 그 고통에 대하여(II)..."

테라피 치료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과 자식간의 충돌, 부부의 갈등, 연인사이에서 오는 오해, 상사와 동료들의 무시, 형제간의 싸움, 친구의 배반 등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때문이다.

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걸까? 마음 안에 있는 "집착"이 원인이 아닐까? 집착은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워, 흠어진 마음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마음을 잡으려 할수록, 집착이 더 생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가 집착인 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다. 자기 이고(Ego)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이다.

아픈 상처를 가리려, 사람들은 방어기제의 가면을 쓴다. 이 방어기제의 하나로, 상처가 없다고, 부정(Denial)할 수도 있고, 상처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왜곡(Distortion)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안으로는 복수의 칼을 가는 소동공격(Passive-Aggressive)일 수도 있고, 신체에 병이 생기는 신체화(Somatization)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퇴행(Regression)일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를 전이시키는 전치(Displacement), 투사(Projection)일 수도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에 마음에 묻어두는 억압(Repression), 남이나 자기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Controlling)하려 하거나, 상처에 대한 이성화(Rationalization),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하는 해리(Dissociation)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를 지성인의 행동을 모방한 지성화(Intellectualization)로 방어할 수도 있다.

집착의 원인은 아픔을 제대로 풀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이다(고착: Fixation, 억압: Repression).

상처가 올 때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덧 씌우고, 그 위에 다시 가면을 씌웠다. 그리하여, 상처가 집착으로 변화함을 모른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과거의 물어둔, 골 깊은 상처들로 가려져 있다. 그 골 깊은 상처안에는 그 크기만큼의 집착 에너지가 있다. 아주 큰 힘이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허상적인 미래로 향하여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조바심', '불안감', '증오', '의심'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다. 욕심 때문에, 시야가 협소한 '터널 비전'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조급증'과 '과욕'이 합쳐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는 안되는 일과 관계, 자신의 능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끝이 처절하다. 극에 달한 고통이다. '공지영' 작가는 말한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벗어날 길은 단 두 가지다. 미쳐버리든지, 해탈을 하든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과 젊은 제자, '까미유 끌로델'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43살의 로댕은 이미 20년동안 자신의 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로즈 베리'라는 여인이 있었다.

하지만, 내면에 불꽃같은 열정을 지녔고, 아름답고, 똑똑한 천재 조각가인 19살 까미유의 매력에 매료 되어, 로댕은 사랑에 빠졌다. 까미유는 로댕의 마음, 그의 예술, 모습을 그대로 사랑했다. 반면, 로댕은 까미유를 사랑하면서도, 그녀가 가진 재능, 생의 열정, 자유로운 용기를 선망했다. 10년을 사귀는 동안 까미유는 로댕에게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로댕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로즈 베리'를 버리고 나서 과생되는, 사회의 지탄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쌓아온 탄탄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로댕은 자기의 계산법에 의해, 까미유를 버렸다. 까미유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 로댕을 사랑했지만 맞바꾸어진 대가란, 배신감, 비참함, 모멸감, 수치감이었다. 그 누구보다 자기를 먼저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보다 앞장서 형벌을 내린 것이다. 사랑이 치욕으로 변하는 이 경험은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경험 해 보지 않아도 되는 상처가 아닐까?

그 이후, 까미유는 피해의식과 로댕이 자기 그림을 표절하고 훔쳐 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분노가 과대망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부모님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그 이후,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단 한번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쓸쓸히 숨을 멈출 때까지였다. 그녀의 열정적인 생의 열망은 로댕을 원망하는 배신감으로, 차가운 병원 공기와 함께 응고되었고, 그녀의 빛나던 눈빛은, 비통한 눈물로 피물이 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태어난 지 2주만에 죽은 아들에 대한 아픔과 죄의식을, 그녀에게 '까미유'라는 양성적인 이름을 주는것으로 대체했다.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까미유의 탄생과 연결시킨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그녀의 탄생으로 전치(Displacement), 투사(Projection)시킨 것이다. 그녀를 미워했고,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을 만큼 냉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둘째 딸 루이즈에게만은 달랐다. 애정을 쏟아주는 편애된 사랑을, 까미유는 보아야만 했다.

까미유는 이미 어린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진, 깊은 상처를 마음에 지니며 살아온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사랑받고 싶어했던 그녀의 집착은, 로댕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관계였다. 버리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통한, 억압된 에너지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억압된 사랑을 통해 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나쁜 관계에 집착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로댕은 처절하게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집착이 두려웠다.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조건적인 사랑법은 그녀의 깊은 상처로 인한 집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회피(Avoidance)라는 방어기제로, 이해조차 시도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0-14까지)

Dr. Jeong Sook Lee (장영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민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H
마트에서
5분 거리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창당 작업 본격화

이달 26일 창당 목표, 안철수·김한길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 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이 창당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한배를 탔지만 한 가족이 되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당의 정체성을 담은 정강·정책을 놓고 양측의 '노선 갈등'이 벌어져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통합 분위기에 찬물이 끼여진 형국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신당의 기초선거 불공천 방침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함께 손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26일 창당 목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09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으로 최종확정하고,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넓은 체제로는 더 이상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념과 지역에 매몰돼 현실과 합리적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증오와 배제, 지역과 파벌의 정치를 우리가 먼저 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도 "오늘의 창당 발기는 △국민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먼저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혁신의 다짐 △고단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생 중심주의 정치선언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해 6월 지방선거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해 다같이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경기도당(18일), 대전시당(20일), 광주시당(20일), 인천시당(21일), 부산시당(22일), 서울시당(23일) 등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안, '6·15과 10·4 정강·정책'에서 누락시켜 논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측이 마련한 정강·정책 초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제시한 정강·정책 초안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안 의원의 '우클릭' 행보와 맞물리면서 역사인식과 철학 부재 문제로까지 번지자 새정치연합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대선 전부터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으며,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정강·정책의 내용을 지켜봐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4·19와 5·18은 물론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견이 없고,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반영

한다는 생각도 저와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동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의 이질점이 확인된 만큼 남은 창당 과정에서는 물론 신당 출범 이후에도 내부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보수·진보 아우르는 '중도' 노선 강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노선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경제, 복지, 안보 등 주요 정책 기조에서도 점차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경제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발기인 대회 이후 첫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는 분배나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정책은 자율적 경영을 존중하되 사회 구성원의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의 기존 강령인 '보편적 복지'에서 나아가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길을 추구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한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등 안보 기조에 대해서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되 통일 정책은 초당적이고 남북협력의 토대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통합의 고리가 됐던 기초선거 무공천의 향방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은 19일 1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창당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

고 말했다. 새정치비전위 간사인 최태욱 한림대 교수도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비전위가 '무공천 철회'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결정이든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에서 비전위의 독립적인 논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통상 기초선거는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인데, 통합신당 소속을 알리는 '기호 2번'을 포기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통합갈등 후 신당 지지도 하락

통합 갈등과 함께 신당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다.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경우 통합신당 지지율은 22.5%로, 새누리당 44.1%의 절반에 불과했다. 17일 매일경제·MBN·메트릭스 조사에서는 30.5%, 1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0%를 기록했다. 지난 2일 통합 직후 실시한 리서치뷰 조사(42.1%), 4일 중앙일보 조사(35.9%)와 비교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빠진 것이다.

지지율 하락은 통합과정의 과열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계과 갈등과 같은 민주당의 분열적 모습이 통합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지지층 흡수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향후 창당 이벤트가 남은 만큼 지지율 하락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soh@bostonkorea.com

원격의료·의료영리화 2차 의정협상에 비난 봇물

수용여부 투표 결과 '찬성' 우세, 집단휴진 철회안 가결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입법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에 타협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애초 과업의 목적이었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타협을 봤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거세지고 있다.

우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명시했을 뿐 입법은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한계로 지적된다.

의협이 당초 주장했던 '선 시범사업-후 입법'안은 먼저 시범사업을 해본 뒤에 입법을 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보면 시범

사업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이 확정돼 있는 듯 하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다"가 합의의 원문이다.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것은 이미 입법 자체를 전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의료영리화로 비판받던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드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정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대신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남희 사회복지 팀장은 "의협이 과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의료영리화

저지이고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분을 다른 것과 맞바꾼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 양측은 보건의료정책의 막강 의결, 심의기구인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온다. 의사협회는 공익위원 8명 중 4명을 가져가는 것이라 한다. 반면 정부는 원래 있던 공무원과 산하기관 추천 몫은 제외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결국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어정쩡한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잇달아 2차 의정협상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지지기반이자 의사협회의 개혁을 외쳐오던 전국 의사총연합 등에서 강력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의사협회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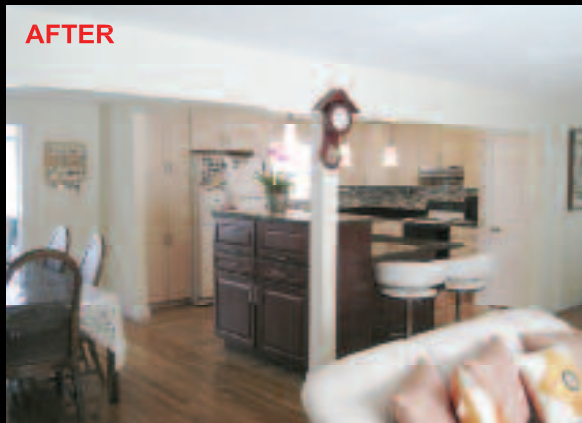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일 의협 의사총과업 찬반투표, 즉 2차 의정협안 수용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찬성 2만5628명(62.16%), 반대 1만5598명(37.84%)로 집단휴진 철회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hsoh@bostonkorea.com

© 2014 OTK DeCon Group. All rights reserved.



Cambridge, MA



AFTER



BEFORE

Lexington,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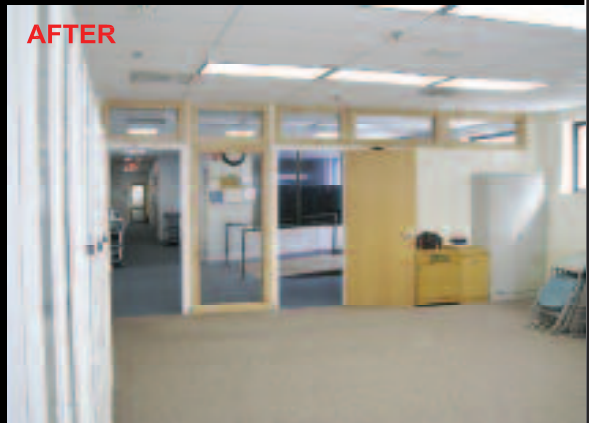


AFTER



BEFORE

Topsfield, MA



AFTER



BEFORE

Woburn, MA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코리아

1박 2일

보스톤 여행후기 공모

보스톤에서 이곳은 꼭 가봐야 할 IT PLACE 를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보스톤을 후회없이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보스톤의 소중한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당일치기 혹은 1박2일 동안 보스톤을 여행할 수 있는 완벽한 여행코스를 사진등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또한 본인만 알고 있는 보스톤의 숨겨진 여행장소를 알려주세요.

재치 있고 알찬 여행후기를 보스톤코리아 지면 및 웹사이트 여행면에 소개합니다.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후기를 작성하신 5분을 선별해서, 푸짐한 경품도 드립니다.

MS word로 작성하신후,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마감일 : 2014년 4월 20일

(마감 당일까지의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1등(1명) : iPad mini retina 16GB

2등(1명) : Top of The Hub \$100 gift card

3등(3명) : \$50 Amazon gift card

enjoy & TV

보스톤 엔티비

개국 1주년 이벤트

신규가입자에 한해 6개월 동안의 혜택

\$24.99 ~~\$3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 이벤트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스톤 엔티비 개국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홀드백 없이 당일 방송을 당일 시청할 수 있는 \$34.99 프리미엄 플랜을 6개월간 \$24.99에 시청하십시오. 이벤트는 단 3개월만 진행합니다. 엔티비는 인터넷 신호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IPTV로 셋탑 박스를 설치해 원하는 시간에 내맘대로 시청 가능합니다. 엔티비는 월 \$34.99/24.99 두가지 한국방송 시청 플랜이 있습니다.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알림]

한미 저작권보호기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의사와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재 ICE, 인텔 등과 합동수사중이며, 한국 KBS, MBC, SBS방송 3사가 연방 ICE, CBP, FBI 등 미국정부와 공조한 결과 가장 가입자가 많은 불법내리(구 콩디스크)운영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난무하는 미전역에 운영자들을 공개수배중이 있으며, 앞으로 단속대상에 일반 사용자들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w.enjoyandtv.com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태국 행위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650.6656/617.955.9112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부유층 계좌 드러난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탄력받을 듯

(세종 =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미국 계좌를 통해 탈세를 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소득을 숨긴 한국인이 과세당국에 꼬리를 밟힐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계좌를 가진 미국인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이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와 함께 17일(현지시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한국 내 미국인, 미국 내 한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를 지목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가 대거 자동 교환돼, 조세당국이 역외탈세를 추적하기 쉬워진 것이다.

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호화생활을 해 온 부유층은 국세청의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 금융계좌 정보교환 대상과 방식은 = 미국 내 한국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한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 미국 예금 최저금리가 약 연 0.1%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약 1만달러(약 1천70만원) 이상 예금계좌, 펀드, 금융상품 등이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국 법인은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국 내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미국인은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다만 저

축성 보험은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25만달러 이상이면 미국세청에 통보된다.

한국 내 미국 법인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는 미국세청에 통보되는데, 올해 7월 이후 개설되는 신규계좌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보 자동 교환 대상이 된다.

양국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상 계좌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이 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한다.

금융기관은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통해 계좌 소유자를 식별하는데, 만약 국적이 모호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실사를 거칠 계획이다.

◇ 자산 은닉·세금 탈루 어려워진다 = 한국은 그동안 110여개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지만, '자동' 교환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를 지목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미국과는 이런 절차 없이 대상 계좌 정보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국의 자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탈루해 온 경우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해외계좌신

고제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던 해외금융계좌를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시 50억원 이하 계좌는 계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고, 50억원 초과 고액 계좌는 계좌 금액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미국과의 협정으로 한국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 내 한국인 계좌 규모가 10억원 이상에서 약 1천만원 초과로 대폭 확대된다.

또 10억원 이상의 고액 계좌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던 계좌 정보도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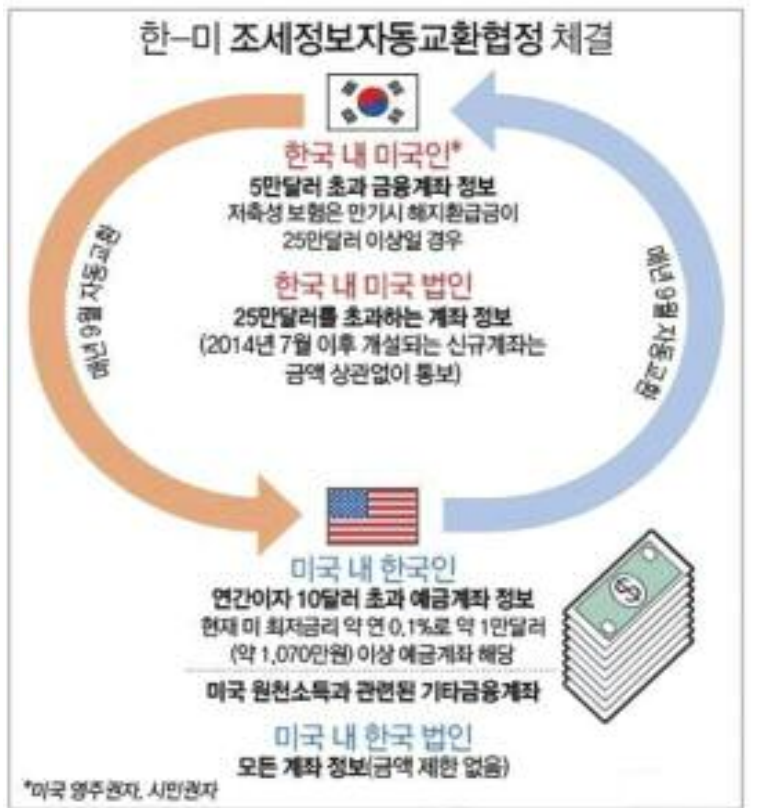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이며, 이들은 6천718개의 계좌에 2조 8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해외계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이 자동으로 이뤄지면 미국내 혹은 한국내 미신고 계좌가 상당수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부터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미신고 계좌들은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올해 기준 계좌 정보는 신고 기한인 내년 6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받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한국에 이번 협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 자산을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로 한국과 미국은 더이상 금융자산의 도피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숨기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이번 협정이 역외탈세 추적이 크게 도움이

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sroh@bostonkorea.com

미국인 36% 노후대비 저축액 100만원도 안돼

(뉴욕 = 연합뉴스) = 현재 일을 하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노후를 위한 저축이 1천달러(107만 원가량)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기관 '고용해택연구소'(EBRI)가 현재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 1천명과 '은퇴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36%의 저축액은 각종 연금을 제외하고 1천달러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1만달러 미만' 16%, '1만~2만5천달러 미만' 8%였다. 따라서 저축액이 '2만5천달러(2천677만

원가량)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60%로 집계됐다. 또 '2만5천~5만달러 미만' 9%, '5만~10만달러 미만' 9%, '10만~25만달러 미만' 11%, '25만달러 이상' 11%로 분류됐다.

은퇴자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형편이 조금 나았다.

은퇴자의 저축액은 '1천달러 미만' 29%, '1천~1만달러 미만' 17%, '1만~2만5천달러 미만' 12%, '2만5천~5만달러 미만' 8%, '5만~10만달러 미만' 7%, '10만~25만달러 미만' 11%, '25만달러 이상' 17%의 분포를 보였다.



**조세핀 김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하는
자녀양육 세미나 두번째 이야기**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문화적
차이점과 충돌 그리고 해결책**

일시: 2014.4.10 (목)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워싱턴프런티어교회 렉싱턴 캠퍼스
(7 Clematis Rd., Lexington, MA)
회비: \$15
문의 및 예약: 워싱턴프런티어교회
(dosan95@gmail.com, 918-876-2815)
*세미나동안 Kids Care가 제공됩니다.



조세핀 김 (김명화 교수)

* (현)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베스트셀러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저자
* KBS<수요기획>,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및
목요 특강 출연
* EBS<아이의 사생활>, <어머니전> 출연
* 현재 Radio Korea, New York의
"Post It" Expert 상담코너 진행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60-70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룬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변화가 좋은 장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약세사리, 연매상 \$500,000+

룬드로맷 고급동네, 연매상 \$62,000, 소유자 부재, Open/Close 자동시스템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룬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2,000 고급동네

섬머빌 룬드로맷 연매상 \$18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룬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뉴튼지역 세탁소+셔츠 유닛, 내부수리 완료, 연매상 \$17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 / AP 수업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단기 고득점 완성
- 실전 문제 중심 수업
-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014 주말프로그램

SAT I Class

9:00-10:00 vocabulary
10:00-11: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1:00-2:00 점심
2:00-5:00 실전문제 풀이

Writing Class

*현직 영어교사 강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4-5학년: 10:00-12:00(토)
*6-8학년: 12:00-2:00(토)

AP 및 SAT II subject, National Spanish Exam 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3,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3.8(토)~3.22(토)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4.19(토)~ 4.27(일)

SAT I Class

*주말 SAT I Class와 같은 시간구성

무료 진학상담 가능(예약필요)

*2015 college process는 경수완료 되었습니다.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